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옥 경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혜 원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 옥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혜 원

인 준 서

이혜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0월

심사위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차이를 검증 하였다. 또한 유아의 기질적인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의 보고에 기초한 설문지 뿐만 아니라 만족지연, 뽀로로가 말하기, 실망스런 선물 등의 실험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등의 관찰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차이를 검증했다. 통제노력 과제인 뽀로로가 말하기 성공점수는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뽀로로가 말하기의 성공점수가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CCNES) 중 고통감 반응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유아의 나이가 들수록 고통감 반응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성별로 차이가 났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의 증가가 더 컸다.

둘째,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집중하기, 억제통제, 주의전환이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가 관찰을 통해 측정한 정서조절 중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와 부적 상관,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이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정서조절실패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유아의 통제노력 중 만족지연 시간이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실험인 실망스러운 선물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정서관련 양육행동 질문지(CCNES)의 지지반응인 문제정서 초점반응, 표현격려반응은 정서조절(ERC)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CCNES의 비지지반응인 고통감은 정서조절(ERC)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측정한 협동놀이(언어적 반응)는 정서조절을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정서조절 실패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과 억제통제, 정서관련 양육행동 질문지(CCNES)의 문제·정서초점이 정서조절(ERC)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가 관찰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를 부적으로,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이 관찰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정서조절실패와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장표현을 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실험으로 통제노력을 측정한 만족지연시간이 실험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본 연구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의 관계와 그 주요 특징이 선행연구의 많은 부분과 일치했고, 본 연구의 가설도 대부분 검증되었다. 향후 선행 연구와 불일치하고 추가적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논의 되었다.

주요어: 통제노력, 정서관련 양육행동, 정서조절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가설	4
II. 이론적 배경	5
1. 정서조절의 개념과 발달	5
1) 정서의 정의	5
2) 정서조절의 개념	7
3) 정서조절의 발달	8
2. 통제노력	11
1) 통제노력의 개념	11
2) 통제노력의 발달	13
3)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에 관한 선행연구	14
3. 정서관련 양육행동	15
1) 정서사회화 모델	16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18
3)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에 관한 선행연구	21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연구절차	26
1) 예비연구	26

2) 본 연구	33
3. 측정도구	35
1) 유아의 통제노력	35
(1) 통제노력척도	35
(2) 만족지연과제	36
(3) 뽀로로가 말하기를	38
2) 유아의 정서조절	39
(1) 정서조절척도	39
(2) 실망스러운 선물	40
(3)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	44
3)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46
(1)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 척도	46
(2)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47
4. 자료분석	50
IV. 결과	51
1. 유아의 성과 연령별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조절의 차이	51
1) 유아의 성과 연령별 통제노력의 차이	51
2) 유아의 성과 연령별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차이	52
3) 유아의 성과 연령별 정서조절의 차이	52
2. 유아의 통제노력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57
1)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CBQ)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57

2) 실험으로 측정된 유아의 통제노력(‘만족지연과제’, ‘뽀로로 말하기’)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58
3.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58
1)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CCNES)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58
2) 관찰로 측정된 어머니 양육행동(어머니-유아 협동놀이)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59
4.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62
1)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어머니 보고)에 미치는 영향	62
2)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과잉억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	63
3)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과장표현: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	65
4)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실망스러운 선물 실험)에 미치는 영향	65
V. 논의	68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1. 질문지

부록 2. 이야기 꾸미기 에피소드(MSSB)

부록 3.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평정척도 기록용지

부록 4.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

부록 5. 협동놀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분석 코딩 매뉴얼

부록 6. 실망스러운 선물 반응 sheet

부록 7. 어머니-유아상호작용분석 sheet

감사의글

표목차

<표 1> 유아의 성별 연령 분포	25
<표 2>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25
<표 3> CCNES의 탐색적 요인분석	30
<표 4> CCNES의 정서조절/양육효능감 상관	31
<표 5>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	32
<표 6> 정서조절 질문지(ERQ)의 문항	33
<표 7> 전체 연구도구 및 방법	34
<표 8> 관찰실험 절차	35
<표 9> 통제노력척도의 하위문항 구성	36
<표 10> 만족지연 과제 실험절차	38
<표 11> 뽀로로가 말하기를 평가기준	39
<표 12>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 하위 요인	40
<표 13> 실망스러운 선물 실험절차	42
<표 14> 정서표현 반응 평가표	43
<표 15>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 하위 영역내용과 평정기준의 예	46
<표 16>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관찰 절차	48
<표 17> 협동구성과제를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평가	49
<표 18> 유아의 성과 연령별 통제노력의 차이	54
<표 19> 유아의 성과 연령별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차이	55
<표 20> 유아의 성과 연령별 정서조절의 차이	56
<표 21>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과의 상관	60
<표 22>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정서조절과의 상관	61
<표 23>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	

(ERC)에 미치는 영향·····	63
<표 24>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 (과잉억제)에 미치는 영향·····	64
<표 25>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 (과장표현)에 미치는 영향·····	66
<표 26>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 (실망스러운 선물)에 미치는 영향·····	67
<그림 1> CCNES의 구조모형·····	31
<그림 2> 뽀로로 말하기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51
<그림 3> 어머니의 고통감 반응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52
<그림 4>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5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매일의 일상에서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다양하게 경험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서조절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의 기초가 된다. 사회적 유능감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래나 주변 성인에게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아동은 또래에게 인기가 있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한다(김은희, 2014; Denham, 1998). 반면에 과도한 정서표현이나 정서억제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유아기 정서조절의 발달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심리적 적응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발달적 구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발달심리분야에서 유아기의 정서조절발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Cole, Martin, & Dennis 2004).

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1990년대말 이후(Eisenberg, Cumberlnd, & Spinrad, 1998),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발달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서 하나만을 연구하기 보다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정서기능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정윤경, 2008). 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는 유아기에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될수록 이후의 사회적 유능감이 증진된다는 연구(김은희, 2014; Denham, Zoller, & Couchoud, 1994)와 유아기의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이후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박진아, 2006; Eisenberg, Cumberlnd, Spinrad, Fabes, Shepard, Reiser, Reiser, Murphy, Losoya, & Guthrie, 2001;

Fabes & Eisenberg, 1992)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질(disposition)은 유전적 특질로서,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개인적 특징인 반응성, 각성수준, 반응의 잠재성, 사회성, 접근회피 경향 등을 의미한다(Saarni, 1989). 특히 통제노력(effortful control)은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율적인 조절 능력으로서 정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질적 요인이다. 최근에 통제노력이 유아기에 정서조절과 함께 발달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장혜인, 2010; Eisenberg, Smith, & Spinrad, 2010). 통제노력은 자기 조절(self-regulation) 기질로서 지배적 반응을 억제하고 하위의 반응들을 활성화 시키는 능력이며, 효율적인 실행적 주의(executive attention)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2006). 유아의 통제노력의 발달은 사고와 활동성이 급속하게 증진되는 3세에서 5세경에 이루어진다(Carlson & Wang, 2007). 이 시기는 정서조절 발달 시기와 일치하므로, 유아의 정서조절 발달과 통제노력의 발달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Carlson과 Wang(2007)은 실험연구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과 통제노력의 관계성을 밝혔고, Eisenberg 등(2001)은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유아가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유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성이 높고 통제노력은 낮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는 문영경(2009)이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때 유아의 통제노력(노력적 통제)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 김정민(2013)은 기질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정은정(2013)은 통제노력(의도적 통제)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심리적 적응을 매개함을 연구했다. 최근까지 국내에서 행해진 정서와 통제노력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이고,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용어도 통제노력, 의도적 통제 등 통일되어 있지 않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서 유아의 정서 조절과 많이 관련된다(Calkins, 1994; Denham &

Kochanoff, 2002). 유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내면화 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요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임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정윤경, 2008). 자녀의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정서표현과 조절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정서경험을 사회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하고 억제하는 정서조절 능력은 기질 및 사회적 경험과 상호작용해 생의 초기에 중요한 발달을 하게 된다.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설문조사(이지은, 2014)나 유아시기 회고(구승희, 2011; 김윤정, 2012; 안효민, 2013; 정윤경, 2010)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을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측정할 경우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편향적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의 한계가 있고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관찰 및 실험 연구 등이 부족하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척도를 우리나라의 사회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차 수준에서 번역해 사용하므로 문화적 차이와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지연, 남은영, 2011; 오지현, 2013).

유아기 정서조절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질인 통제노력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과 연구가 부각되고 있다.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자녀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어머니 보고에 의존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머니가 보고하는 설문조사뿐

아니라 관찰 및 실험 연구를 통해 보다 타당도 높고 실증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정서조절과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고,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1. 성과 연령에 따라 통제노력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성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3. 성과 연령에 따라 정서조절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1.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2.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1.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2.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서조절의 개념과 발달

1) 정서의 정의

심리학에서 정서(emotion)의 개념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된다. 정서에 대한 정의는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만큼이나 정의내리기 어려운 개념이며 연구자들마다 정의가 다르다(Kalut & Shiota, 2007). 정서가 인간의 삶에 다양하고 폭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그 개념이나 정의 역시 매우 복잡한 것이다.

정서(emotion)와 감정(affect)은 구분되어 사용된다. 정서는 복합적인 반응 경향으로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강하게 나타나며, 환경상의 일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의미(meaning)와 평가(appraisal)에 의해 생긴다. 보통 주관적인 경험, 얼굴표정, 인지적 처리와 생리적 변화 등이 동반된다. 감정은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한 느낌(feeling)을 말한다. 감정은 정서내에 존재하지만, 신체감각, 태도, 기분(mood), 다양한 감정적 특성 등과 함께 나타난다(Frederikson, 2001).

기본적으로 정서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리적 반응, 행동반응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정신과정이다. 대부분의 정서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는 William James(1884)의 진화론적 관점에 의하면, 정서(emotion)는 생존에 중요한 상황에 의해 발생된 적응적인 행동 및 생리적인 반응 경향성이다. 개인이 상황을 중요한 도전, 혹은 기회를 제공하는 유효성 있는 반응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정서반응은 비교적 짧게 지속되며, 행동, 경험, 자율신경계, 내분비 체계에서의 모든 변화가 포함된 통합적 과정이다(Lang, 1995). Plutchik(1982)은 정서란 자극에 대한 복합적 반응이 연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인지평가, 주관적인

변화, 자율신경계와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과 복합적인 연쇄 유발 자극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Hockenbury와 Hockenbury(2007) 역시 정서는 복잡한 심리학적 상태로서, 주관적 경험, 생리학적 반응과 행동적이나 표현적 반응이 모두 관계된 포괄적인 심리상태라고 했다. 정서는 또한 개인이 자신과 변화하는 환경간의 관계를 성립하고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나 준비성이라 할 수 있다(Campos, Frankel, & Camras, 2004).

정서는 보통 다음의 4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arkinson, 1994). 첫째, 정서는 외적 요인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appraisa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외적 경험과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Lazarus, 1982). 둘째, 신체의 반응(각성)에 의해 정서가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느끼는 정서는 주로 신체적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James, 1890). 셋째, 정서는 사람의 얼굴표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track, Martin, & Stepper, 1988). 넷째, 정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의 행동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Frijda, Kuipers, & Schure, 1989).

결국 정서는 인지, 느낌, 행동이라는 3가지 측면을 다 갖는다. 인지는 평가와 관계되고, 느낌은 일종의 감각이며, 행동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충동성이다. 또한 정서는 기능적(functional)으로 우리의 생활과 적응에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유용성과 효과성을 더 많이 갖는다. 정서가 있으므로 해서 인간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포에 대해 적절히 도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나 정서반응은 어느 정도 조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정서반응의 최종 결과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게 된다(Gross, 1998; Kalat & Shiota, 2007).

2) 정서조절의 개념

최근 20여 년 동안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정서조절에 대한 개념 역시 정서에 대한 정의처럼 다수의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연구자마다 약간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Morris와 Reilly(1987)는 정서조절은 정서를 다루는方略(strategy)이라고 정의했다. McCoy와 Masters(1990)는 정서조절이란 자신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변화시키고,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지 않게 하고, 긍정적 정서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Westen(1994)은 정서조절에 대해 유쾌한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손재민, 2005 재인용).

1980년대 후반부터 발달심리학의 정서연구 분야에서 나타난 정서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Barrett & Campos, 1987; Campos, Campos, & Barret, 1989; 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LaFreniere, 2000)은 정서가 개인과 사회 환경이 함께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정서는 개인이 자신과 변화하는 환경간의 관계를 성립하고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나 준비성이라 할 수 있다(Campos, Frankel, & Camras, 2004). 정서조절은 정서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내·외적인 조절을 통해 변화하는 과정이며, 자신과 타인에 의해 정서 경험과 표현을 조절하는 과정이다(Campos et al., 1989; Campos et al., 1994). 기능주의적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서를 유기체와 환경간의 중요한 관계를 성립, 유지, 분리하는 복합적 과정으로 간주하였으므로(Campos et al., 1989), 대인관계에서 정서의 표현이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보다 통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김정

민, 2013).

현재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정서발달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유아기에 형성되는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의 다양한 영역은 물론 이후의 심리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Landy(2006)는 좋은 정서조절 능력을 가진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호적이고 갈등에 압도되지 않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는 능력이 좋아서 또래와 잘 지내고 수용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서와 인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안정감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발휘되는 문제해결 능력과 기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정서조절 능력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장기간 적응유연성/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Alvord & Grados, 2005).

3) 정서조절의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불쾌한 기분을 다루거나 적절한 수준의 정서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정서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인 정서발달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기쁨 등의 긍정적 정서 뿐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다양한 문화에서 정서의 강도와 인식, 정서 반응 양식, 회복력과 같은 정서조절 과정의 구성 요인들을 성숙한 변화와 사회화의 효과와 관계된 유아의 핵심적 성격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Thompson 1990).

어린 유아에게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내적 조절과 타인에 의한 외적 조절을 통해 정서조절

능력을 점차적으로 발달시키게 된다(유경, 민경환, 2003). 영아나 걸음마기의 유아도 고통을 유발하는 자극으로부터 주의를 전환하는 등의 자발적 전략을 활용해 기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아동에 비해 덜 의식적이며 수동적이다. 불쾌한 자극이 있을 때 유아는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멀어지려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편한 경우에만 양육자에게 다가가려 한다(Cole, Michel, & Teti, 1994). 3-7개월의 어린 유아는 초보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조직화된 다양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기분을 상당히 안정시킬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적 미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유아 자신의 흥분을 조절하게 한다(Brazelton, Koslowsky, & Main, 1974). 생후 12개월의 유아들은 스스로 몸을 흔들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며, 양육자에게 안기는 것 뿐 아니라 양육자를 보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안정될 수 있다(Mangelsdorf, Shapiro, & Marzolf, 1995).

유아는 생후 9개월 이후 사회적 참조(social reference)를 통해 행동조절을 시작한다. Boccia와 Campos(1989)의 연구에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9개월 된 유아의 반응을 관찰했다. 유아는 어머니가 낯선 사람에 대해 어색해 하거나 낮설어 하는 행동, 반갑게 맞이하는지 여부와 얼굴표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참조적 조절행동은 걸음마기에 이르면 더욱 활발해 진다. Score 등(1985)의 연구에서 12개월 된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려할 때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참조한다는 것을 보고했다(Saarni 등, 2008).

2세경이 되면 유아는 인지 지각능력의 발달과 함께 어휘력이 늘어나면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단어도 많이 알게 된다(Dunn, Bretherton, & Munn, 1987). 또한 당황스러움, 수치감, 죄책감, 자궁심 등의 복잡한 정서를 표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정서들은 자기-의식적 정서(self-conscious emotion)라고 불리는데, 자기에 대한 지각과 연관된다(Lewis, 1993). 유아는

자신을 좌절시키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양육자에게 호소하며, 정서에 대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통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Terwogt & Olthof, 1991).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좌절상황에 대처하기 시작하며, 이 연령의 유아가 분노나 슬픔을 억제하기 위해 인상을 쓰거나 입술을 꼭 다무는 것을 종종 관찰 할 수 있다(Malatesta, Culver, & Tesman, 1989).

3세경에 유아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이론(theory of mind)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인지적 성장과 주의통제의 증가는 새롭고 많은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긍정적 정서를 극대화시키는 사회적 맥락을 선택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혼잣말”로 대처하고 긍정적 용어로 말하는 등 전 시기와는 매우 다르게 월등히 발전한다(Wolchik & Sandler, 1997).

3-5세의 유아는 슬픔과 분노를 변화시키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신체적, 물질적, 언어적, 사회적, 간접적 방략(strategy) 등 친사회적 방략이나 공격적인 방략을 사용한다(Fabes, Eisenberg, Nyman, & Michealieu, 1991; Fabes & Eisenberg, 1992; McCoy & Masters, 1985). Carlson, Felleman과 Masters(1983)는 유아는 기쁨, 슬픔, 분노의 정서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다양한 연구에서 유아는 슬픔을 조절하기 위해 신체적, 물질적 방략을 사용하고, 분노조절을 위해 물질적, 언어적 방략을 사용하며, 고통감을 줄이기 위해 언어적, 신체적 방략을 사용한다. 남아에 비해 여아는 슬픔과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자 친사회적 방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Denham, 1998). 유아기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이 이후의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가 정서조절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이 강조된다(Fabes, Hanish, Martin, & Eisenberg, 2002).

2. 통제노력

1) 통제노력의 개념

기질은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인 변인이다. 최근의 정서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에서 기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장혜인, 2010). Rothbart와 Derryberry(1981)는 정서와 관계된 기질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반응성(reactivity)과 반응성의 조절(regulation of reactivity)이라고 주장했다. Rothbart와 Bates(2006)는 기질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주로 생물학적인 정서·활동·주의의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개인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기존의 이론가들은 주로 자극추구, 위험회피, 부정적 정서성 등 주어진 환경(보상, 새로운 등)에 특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반응하려는 기질의 반응성 차원에만 초점을 두어왔다.

반면 Rothbart(2004)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도 기질에 기초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통제노력 (effortful control)'이라는 기질 차원을 제안하였다. Rothbart와 Bates(2006)는 정서조절을 반응적 통제(reactive control)와 통제노력(effortful control)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반응적 통제는 정서적인 자극이 야기되는 경우에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조절이다. 반면 통제노력은 정서의 자율적 조절이다. 반응적 통제는 보통 자동적인 정서의 과잉이나 과소 통제를 의미하지만, 통제노력은 기질의 조절적 구성요인으로서 지배적 반응을 억제하고 하위 반응을 활성화 시키는 능력인 효율적인 실행적 주의(executive attention)로 정의된다(Rothbart & Bates, 2006). 실행적 주의가 포함된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신경심리학적으로 연구되는 상위인지(meta cognition)의 개념이다.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행동계획을 세우고 과제의 요구에 맞춰 행동을 조절하고 수행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 능력을 의미한다. 실행기능은 계획하고, 정보를

통합하며, 주의를 조절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제노력에 관여한다(곽금주, 2008).

통제노력은 주의를 의지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주의집중, 인지적 전환과 분산)과 의지적으로 억제하거나 행동을 활성화 시키는 능력(억제적이고 활동적 통제: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고 환경적응이나 목표달성을 위한 통제)과 관계된다. 이 과정은 비정서적 행동조절 뿐 아니라 정서적 경험과 정서의 행동표현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Eisenberg, Hofer, & Vaughan, 2007). 주위가 분산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맞추거나 주의를 전환시킴으로써 행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능력과 관계된다(Eisenberg et al., 2007). 결국 통제노력은 정서 활성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전환하여 내적인 정서 경험을 조절한다. 또한 충동이 생길 때 행동 억제, 전략적인 계획과 문제해결을 하게 함으로써 정서의 행동적 표현을 조절한다(Eisenberg et al., 2007; Rothbart & Bates, 2006).

통제노력은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과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로 구성된다(Psoner & Rothbart, 2000). 주의조절은 주의집중과 전환 등 계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이동하는 능력이다. 억제통제는 특정행동을 계획적으로 억제하거나 활성화 하는 능력이며, 특히 원하진 않지만 어떤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일정한 목적 성취를 위해 특정행동을 해야만 할 때 나타난다(Eisenberg et al., 2007). 사전적인 정의로 '통제(control)'는 '억제(inhibition)'를 의미하지만, 통제노력은 어떤 행동을 억제한 뒤 나타나는 관련된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조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Kochanska 등(2000), Eisenberg 등(2000, 2007)과 Eisenberg와 Spinrad(2004)은 통제노력이 정서적 자기조절(emotion-related regulation)과 동일한 것이라 주장했고, Simonds 등(2007)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정서조절을 위해 반드시 통제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결국 통제노력은 기질

적 차원으로서 정서조절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 자기조절(self regulation)의 기초가 되는 개념(장혜인, 2010)으로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통제노력이나 정서조절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장혜인(2010)은 ‘통제노력’, 문영경(2009), 배윤진(2011), 김정민(2013), 이유진, 정은정(2013)은 ‘의도적 통제’ 등 아직 통일된 번역이나 표현이 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노력’이란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겠다.

2) 통제노력의 발달

통제노력은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과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Posner & Rothbart, 2000). 주의조절 능력은 9개월 된 유아에서 초보적 형태(불쾌한 자극에서 고개 돌리기 등)로 관찰된다. 주의조절 능력은 이후 발달하는 통제노력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Sethi, Mischel, Aber, shoda, & Rodriguez, 2000). 주의조절 능력은 영아기 이후 자발적, 복합적, 융통적인 형태로 발달한다(Kochanska, Coy, & Murray, 2001). 만 3세 전후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전 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을 포함한 전 주의체계(anterior attention network)와 관계가 있다(Posner & Rothbart, 2000; Rueda, Posner, & Rothbart, 2005). ACC는 뇌의 각 영역에서 보내는 정보간의 불일치를 탐지하는 실행적 중추이며(Botvinick, Braver, Barch, Carter, & Cohen, 2001), 반응성 기질과 관련된 동기/정서 체계인 변연계와 계획/통제 체계인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다(Rueda et al., 2005).

주어진 자극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상황이나 사회적 규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 불일치를 탐지, 제어하는 것이 ACC의 기능이다. 여러 연구에서 실행적 주의와 통제노력 기질은 유아기부터 발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Jones, Rothbart, & Posner, 2003; Rueda, et al., 2005).

통제노력의 구성 요소인 억제적 통제는 주의체계의 발달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금지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영아기 이후 비교적 늦게 발달하는 능력으로서 24-36개월 이전의 억제적 통제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거의 없다(Posner & Rothbart, 2000). 그러나 부모용 질문지(Moilanen, Show, Dishion, Gardner, & Wilson, 2010)와 만족지연 과제(Li-Grining, 2007)에서 유아의 억제적 통제는 만2세에서 4세 사이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시에 따라 행동을 개시하거나 억제해야 하는 실험과제에서 유아가 자신의 반응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확률은 만 3세 22%에서 만 4세에 90%로 크게 증가하였다(Jones et al., 2003). 주의조절과 억제적 통제 능력과 관계된 통제노력은 만 3세 전후부터 급속히 발현되는 기질이며, 전두엽의 성숙과 관련이 있다(Diamond & Taylor 1996). 유아의 통제노력은 유아초기에 서서히 발달되고 발현되는 특질인 동시에 기질적 차원으로서 매우 안정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에 관한 선행연구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로서 Liew, Eisenberg 및 Reiser(2004)는 높은 통제노력과 낮은 부정적 정서성(negative emotionality)을 보이는 유아들이 낯선 사람 앞에서의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상대적으로 적게 했다고 보고했다. Carlson과 Wang(2007)은 유아의 통제노력의 한 부분인 억제통제(inhibitory control)가 나이와 언어능력을 통제한 후에도 정서조절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도 일치했다고 했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가 높고 통제노력이 낮을 때, 내재화 장애 및 외현화 장애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Auerbach, Berger, Atzaba-Poria, Arbelae, Cypin, & Friedman, 2008; Verstraeten, Vasey, Raes, & Bijttebier, 2009).

또한 Spinard 등(2007)은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통제노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 상관이라고 보고했다. Chang, Olson, Sameroff, & Sexton 등(2011)은 남아의 경우 부모의 따뜻한 반응성과 적절한 체벌이 3년후의 외현화 문제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통제노력이 이를 매개했다고 보고했다. 여아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내연구에서 문영경(2009)은 유아의 통제노력(의도적 통제)은 어머니의 정서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이 자녀의 사회기술, 외현화 문제,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했다. 유아의 통제노력은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매개역할을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김정민(2013)은 유아의 억제통제(실행 기능 중 억제)와 인지적 유연성이 정서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유아의 억제통제와 인지적 유연성이 커질수록 정서조절이 증가한다고 했다. 이유진, 정은정(2013)은 유아의 통제노력(의도적 통제)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유아의 통제노력은 어머니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를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3. 정서관련 양육 행동

1980년대 후반부터 정서관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과 변화하는 환경과의 관계를(그 중요도에 입각해서) 성립하고 유지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나 준비성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었다(Campos, Frankel, & Camras, 2004). 정서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하는 정서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정서적 특성에도 다른 인간의 특징과 비슷하게 개인의 기질적 소인과 외적 환경의 두 측면이 모두

작용한다. 그런데 정서적 특성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험되고 조절되면서 구성되므로 외적환경으로부터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다(노지영, 정윤경, 2010).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외적 환경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부모가 유아의 정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유아의 정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Denham, 1993; Dunn & Brown, 1994; Garner, Jones, & Miner, 1994).

1) 정서사회화 모델

부모는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서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대상으로서, 유아가 정서를 학습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ewis & Saarni, 1985). 유아는 가정에서 부모의 정서표현 방식을 관찰하면서, 정서를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지(Denham et al., 1994; Eisenberg et al., 1998), 자신이 표현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하면서 자신의 정서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습하게 된다(Dunn et al., 1991).

정서발달과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Eisenberg, Cumberland 및 Spinard(1998)는 정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모델(Socialization of Emotion)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의하면 자녀 특성, 부모 특성,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emotion-related socialization behavior)은 유아의 정서 경험, 정서의 이해와 조절, 정서표현과 자기-관계-세상의 도식(schema) 형성에 직, 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결과 자녀가 사회적 행동 또는 사회적 유능감(social emotional competence)을 갖고 상호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능

감이 개인적인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정서조절 등을 학습하면서 사회 정서적 발달을 하게 된다.

Eisenberg 등(1998)은 어머니의 중요한 양육행동으로서 부모의 정서표현(expression), 정서에 대한 대화(discussion), 자녀의 정서에 대한 반응(reaction)의 3가지 행동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부모의 정서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사회적, 정서적 유능감과 관계된다. 부모가 가정 내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정서를 표현할 때, 유아는 부모가 어떻게 정서를 표현하는지 반복해서 관찰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는 정서표현이 어떤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지,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정서를 표현 하는지 모델링하게 된다(송하나, 2006; Boyum & Parke, 1995;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어머니는 자녀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송하나, 최경숙, 2006). 특히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인 기쁨, 애정 등을 많이 표현할수록 유아의 정서표현(Cassidy, Parke, Butkovsky & Braugart, 1992), 친사회적 행동(Denham, Renwick-Debaridi, & Hewes, 1994), 정서 이해력 등 자녀의 전반적인 정서능력이 증진된다(이혜련, 최보가, 2002; Denham & Kochanoff, 2002).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걸음마기 유아들이 더 많이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성향이 있었다(Denham, 1989).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회고적 연구에서도 원가족의 표현성을 높이 평정한 대학생들의 정서표현 수준이 높다고 보고했다(정윤경, 박보은, 2010; Balswick & Avertt, 1977; Halberstadt, 1986).

둘째, 가족간에 정서와 관련된 대화를 적절히 하는 것은 유아에게 부모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정서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민감하게 해 주고, 정서 관련 개념 체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또한 정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정서 경험을 이해하고 정서를 조절하도

록 촉진할 수 있다. 자녀는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적 경험, 그 원인과 결과를 언어로 표현하고 교환함으로써 정서에 대한 보다 명시적 표상을 하게 되고 적절히 사고할 수 있게 한다(정윤경, 2008).

셋째,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다른 정서관련 양육행동보다 자녀의 정서표현과 조절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박서정, 2004), 정서적 상호작용의 도식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Davies & Cummings, 1994, 1997; Eisenberg, Fabes, & Murphy, 1996; Thomson, 1998).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정서 능력을 직접적으로 사회화하는 대표적 예이며, 자녀의 정서 인식, 표현, 조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Eisenberg et al., 1999). 특히 분노나 슬픔과 같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강조되었다.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욱 중요한 조절의 대상이며, 더 중요한 정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Dunn, Brown, & Bearsall, 1991; Eisenberg, et al., 1999).

2)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Eisenberg 등(1998)이 제안한 정서 사회화 과정 모델은 자녀의 정서 경험과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반응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녀의 정서 관련 능력을 사회화시키는 대표적 예로서, 유아의 정서 인식, 표현, 조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Eisenberg et al., 1999).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부정적 정서와 관련된 사회화 경험과 자녀의 정서 사회화에 큰 영향을 준다.

Fabes, Eisenberg 및 Berzweig(1990)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를 개발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크게 지지적, 비지지

적인 태도로 나뉘었다(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비지지적일 때, 유아의 정서적 각성 수준(arousal level)은 높아지고 각성에 대한 조절이 어려워져서 결국 유아의 부적응 행동이 증가된다(Eisenberg et al., 1996). 반면 지지적 반응은 공감능력을 발달시켜 타인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의 감정을 적절히 나타내게 하고, 과도한 정서 각성을 줄이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킨다(Eisenberg et al., 1999)

CCNES는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지지적 태도와 비지지적 태도로 나누고, 각각 세 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① 표현격려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 EE), ② 자녀의 기분이 다시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정서 초점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s: EFR), ③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스트레스에 자녀가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초점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s: PFR) 등으로 분류했다. 또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④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거나 자녀의 문제나 스트레스적 반응을 평가절하하는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actions: MR), ⑤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줄이거나 다루기 위한 처벌반응(Punitive Reactions: PR), ⑥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고통감 반응(Distress Reactions: DR) 등으로 분류했다.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하여 지지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능력이 발달되어 공감 능력이 높아졌고, 보다 나은 대처, 지각된 주의 조절과 사회기능을 보였다(Denham et al., 1997; Eisenberg et al., 1996; Gottman, Karz, & Hooven, 1996). 또한 정서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높은 수용은 자녀가 정서를 다룰 수 있게 기꺼이 돕는 것과 결합될 때, 자녀의 높은 수준의 각성조절과 사회적 유능감이 있었다(Gottman et al., 1996).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격려는 유아의 사회기술, 공감능력, 스트레스 대처, 보다 적절하고 유능한 사회행동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Denham, 1993; Eisenberg et al., 1999;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Gottman et al., 1996; Hardy, Power & Jaedicke, 1993; Laird, Pettit, Mize, Brown & Lindsey, 1994; Tao, Zhou, & Wang, 2010).

부모로부터 자신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비지지적인 반응을 지속적으로 받은 자녀들은 정서 반응을 숨기고 높은 정서적 각성 상태에 있으며 쉽게 안정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또한 유아는 정서경험과 처벌이 강하게 조건화되어 정서 유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불안을 겪게 된다(Gottman et al., 1997). 또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강하게 표현하게 하므로써, 자녀들은 사회적 능력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Eisenberg, et al., 1999; Fabes, et al., 2001).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중 처벌적 반응은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되며, 최소화 반응은 회피적 대처(Eisenberg et al., 1996), 고통감 반응은 부정적 정서인 우울이나 불안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다(Krause, Mendelson & Lynch, 2003; 오지현, 2012 재인용).

이지은(2014)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지지적 반응을 많이 하고 비지지적 반응을 적게 할수록 유아가 보이는 적응적 정서조절이 높아진 반면, 어머니가 비지지적 반응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불안정한 부정적 정서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13-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노지영과 정윤경(2010)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및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박유경(2009)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반응유형(회고된)이 자녀의 정서조절 방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모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재해석 방략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억제 방략에 영향을 주었다. 여고생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김윤정(2012)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회고된)이 정서표현에 있어 양가감정을 갖게 하고 우울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적인 통제노력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를 한글로 번안하여 본 연구에 사용했다.

3)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에 관한 선행연구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로서 Eisenberg(1999)는 부모의 가혹한 태도와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정서조절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기에 학습된 부정적 정서(learned negative emotion)는 가혹하고 부적절한 부모 양육행동과 관계 깊으며, 이후의 정서조절, 학습문제 및 사회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Fabes, Eisenberg, & Miller, 1990; Gottman et al., 1997). Fabes 등(2001)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대처가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내적인 고통감을 느끼면서 부적절하게 가혹하게 대할 때, 그 자녀는 과도하게 정서를 표현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했다. Morris 등(2007)은 정서조절

은 부모의 행동,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모델링의 영향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정서조절은 부모의 양육행동, 애착, 부부관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적개심이 강한 부모의 태도와 양육은 아동의 정서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Tao, Zhou 및 Wang(2010)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특히 부모의 처벌적 반응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했고, 부모의 정서초점 및 문제초점 반응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Chang 등(2011)은 부모의 따뜻한 반응과 적절한 처벌이 3년 후의 남아의 외현적 문제 행동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 과정을 통제노력이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국내연구에서 임희수와 박성연(2001)은 어머니의 냉정하고 강압적이며 유아를 무시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혜련과 최보가(2005)는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수용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조절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문영경(2009)은 어머니가 유아와의 관계에서 민감하고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적개심을 적절히 조절하는 정서사회화 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며, 이 과정에서 유아의 노력적 통제가 긍정적 매개역할을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이지연과 곽금주(2010)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정서조절을 예측하며, 특히 3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무관심이 5세 때 유아의 정서조절을 부적으로 예측했으며, 3세와 5세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이 5세 때 유아의 정서조절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유진과 정은정(2013)은 학령 전기 유아에 대한 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내재화 문제를 줄이며, 이 과정에서 통제노력(의도적 통제)이 역시 긍정적 매개역할을 한다고 했다. 이지은(2014)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

해 어머니의 지지적 반응이 높고 비지지적 반응이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이 증가했으며, 비지지적 반응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정·부정적 정서가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목적은 첫째, 유아의 기질적인 통제노력 (effortful control)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뿐 아니라 관찰 및 실험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둘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조절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수도권 도시 소재의 어린이집 2곳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와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어머니 200명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소개하는 연구 안내서와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 중 81쌍의 어머니와 유아가 연구에 동의하였고 설문지 작성과 관찰실험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어휘력 검사에서 평균이하의 수행을 보인 2명과 실험 중 어려움을 보이거나 신뢰롭지 못한 수행을 한 9명, 연령이 만6세(72개월)이상인 2명의 유아를 제외한 68쌍의 어머니와 유아를 최종 연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 참가자의 수는 남아 34명(50.0%), 여아 34명(50.0%)이었고, 연령별로는 3세 16명(23.5%), 4세 25명(36.8%), 5세 27명(39.7%)으로 3세 유아의 인원이 다른 연령에 비해 약간 적었다. 유아의 평균연령은 3세 45.5개월(연령범위:36-47개월), 4세 54.0개월(연령범위:48-59개월), 5세 67.7개월(연령범위: 60-71개월)이었다(표1).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6.01세(SD: 4.05)이며, 인구학적 배경은 학력은 대졸이 56명(82.4%), 고졸 7명(10.3%), 대학원졸 5명(7.4%)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44명(64.7%), 전문직 9명(13.2%), 교사 6명(8.8%) 등의 순이었고, 배우자의 직업은 회사원 50명(73.5%), 자영업 7명(10.3%), 전문직 6명(8.8%) 등의 순이었다. 수입만족도는 평균 3.22(SD: 8.08)로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 보통 30명(44.1%), 만족 22명(32.4%), 불만족 13명(19.1%), 매우만족 3명(4.4%)의 순이었다(표2).

<표 1> 유아의 성별 연령 분포

연령(만)	성별		
	남	여	합
3세	8	8	16
4세	14	11	25
5세	12	15	27
전체	34	34	68

<표 2> 어머니의 인구학적 배경

인구학적 변인	구분과 빈도	
	구분	빈도(%)
학력	대학원졸	5(7.4%)
	대졸	56(82.4%)
	고졸	7(10.2%)
직업	전업주부	44(64.7%)
	회사원	3(4.4%)
	공무원	0
	교사	6(8.8%)
	자영업	3(4.4%)
	전문직	9(13.2%)
	기타	3(4.4%)
배우자직업	회사원	50(73.5%)
	공무원	3(4.4%)
	교사	0
	자영업	7(10.3%)
	전문직	6(8.8%)
	기타	1(1.5%)
수입만족	무응답	1(1.5%)
	불만	13(19.1%)
	보통	30(44.1%)
	만족	22(32.4%)
	매우만족	3(4.4%)

본 연구는 유아의 정서적 경험을 유아의 언어적 진술을 통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으므로 이 연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용, 표현 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등, 2009)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저조한 수행(35% 이하 수행)을 보이는 유아는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절차

1) 예비연구: CCNES 번역과 CCNES 단축판 개발

예비연구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들의 어머니 30인을 대상으로 CCNES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1차로 발달심리전문가(1인), 임상심리전문가(4인), 부모교육전문가(1인)에게 의뢰하여 CCNES를 수정하였다. 이후에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0명을 대상으로 72문항의 CCNES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해하기 어렵거나 신뢰도가 낮았다고 보고된 문장들을 수정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 1인의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CCNES의 72문항을 실시하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 확인되어 서울, 수도권 광역시와 지방도시의 232명의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서울, 수도권 광역시와 지방도시의 226명의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확인적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 28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CCNES를 구성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8문항의 단축형 CCNES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7이며, 지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 비지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CCNES 단축형 28문항을 개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Fabes, Eisenberg

와 Berzweig(1990)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크게 지지적인 태도와 비지지적인 태도로 나누고 각각 세 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12가지 상황과 그에 따른 6개의 부모 반응 범주로 72문항,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이다.

부모의 지지적 반응은 자녀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① 표현격려반응(Expressive Encouragement: EE), 자녀의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② 정서초점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s: EFR),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스트레스에 자녀가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③ 문제초점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s: PFR)을 포함한다. 또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거나 자녀의 문제나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절하하는 ④ 최소화 반응(Minimization Reactions: MR),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줄이거나 다루기 위해 하는 ⑤ 처벌반응(Punitive Reactions: PR), 자녀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드러내는 ⑥ 고통감 반응(Distress Reactions: DR) 들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CNES의 타당화 연구를 위해 본 연구자가 CCNES를 번안하고 타당화 작업을 실시했다. 김희정(1995)의 연구에서 번안하고 수정한 것은 대체로 충실하였으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번안과정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아 본 연구자가 재 번안하였다. 본 연구자는 발달심리전문가(1인), 임상심리전문가(4인), 부모교육전문가(1인)에게 의뢰하여 CCNES를 수정하여 1차 확정하였다. 이후에 3-5세 자녀를 둔 어

머니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장들과 신뢰도가 낮았던 문장들을 다시 수정하고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 1인의 역번역(back transl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정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유아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72문항이 너무 많은 문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28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CCNES를 구성해서 사용했다.

이를 위해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32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했다.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을 사용했다. 또한 전체 72개 문항들 중 항목-전체 항목간 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30미만이거나 3개 이상의 요인에 중복 상관되거나 특정 요인에 묶이지 않는 문항들을 제거했다. 그 결과 전체 72개 문항 중 최종 4개 요인 28 문항이 추출되었다. 4개 요인 28 문항은 문제·정서 초점 반응 12문항, 처벌·최소화 반응 8문항, 표현격려 반응 5문항, 고통감 반응 3문항 등이었다(표5). 원래의 CCNES의 하위요인인 정서초점 반응과 문제초점 반응은 문제·정서초점 반응으로, 최소화반응과 처벌반응은 처벌·최소화 반응으로 함께 묶였고, 표현격려 반응과 고통감 반응은 원래의 하위요인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문제·정서초점 반응과 표현격려 반응은 지지적 척도, 처벌·최소화반응과 고통감은 비지지적 척도로 구성된다.

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2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SEM)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CCNES의 모형구조의 적합도가 지지되었다($\chi^2=8.23$, $p=.041$; CFI=.974, NNFI=.947, RMSEA=.088(.016-.163))(그림1). 또한 본 CCNES는 정서조절척도 및 양육효능감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지지되었다(표3). CCNES의 지지적 반응에 속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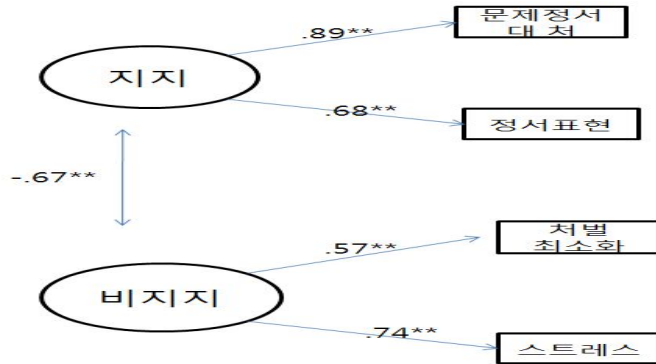
문제·정서 초점 반응은 정서조절 중 인지적 재해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r=.23, p<.01$), 정서표현 억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11, p<.05$). 또한 양육효능감 중 모성방략($r=.61, p<.01$), 자녀 행동결과($r=.51,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CCNES의 표현격려 반응은 정서조절 중 인지적 재해석($r=.16, p<.01$), 양육효능감 중 모성방략($r=.53, p<.01$), 자녀행동결과($r=.42,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CCNES의 비지지적 반응에 속하는 처벌·최소화 반응은 정서조절 중 정서표현 억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r=.17, p<.01$), 양육효능감 중 모성방략($r=-.43, p<.01$), 자녀행동결과($r=-.27,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CCNES의 고통감 반응은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양육효능감 중 모성전략($r=-.29, p<.01$), 자녀행동결과($r=-.19,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표4).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CCNES의 하위척도들이 전반적으로 정서조절척도나 양육효능감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CCNES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지지되었다. 결국 본 CCNES 척도가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축형 CCNES 28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7이며, 지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 비지지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이혜원, 이옥경, 2013)(부록 1).

<표 3> CCNES의 탐색적 요인분석

원문항(설문문항)	요인1 (문제·정서초점)	요인2 (차별·최소화)	요인3 (표현격려)	요인4 (고통감)
CC69(26)	.72**			
CC54(18)	.71**			
CC58(20)	.68**			
CC25(3)	.67**			
CC52(16)	.66**			
CC26(4)	.66**			
CC6(1)	.63**			
CC38(11)	.62**			
CC67(25)	.61**			
CC65(24)	.60**			
CC31(8)	.60**			
CC64(23)	.46**			
CC63(22)		.74**		
CC40(12)		.73**		
CC41(13)		.72**		
CC27(5)		.72**		
CC61(21)		.68**		
CC53(17)		.62**		
CC72(28)		.61**		
CC56(19)		.51**		
CC42(14)			.82**	
CC30(7)			.78**	
CC35(10)			.77**	
CC20(2)			.73**	
CC49(15)			.51**	
CC33(9)				.77**
CC70(27)				.74**
CC29(6)				.69**

** p<.01

그림1. CCNES의 구조모형



<표 4> CCNES와 정서조절/양육효능감의 상관

정서/양육	정서조절		양육효능감	
	인지적 재해석	정서표현 억제	모성방략	자녀 행동결과
문제·정서초점	.23**	-.11*	.61**	.51**
처벌·최소화	-.04	.17**	-.43**	-.27**
표현격려	.16**	-.06	.53**	.42**
고통감	-.04	.06	-.29**	-.19**

*p<.05 **p<.01

(1) 양육 효능감 척도

CCNES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lf-Efficacy)는 Holloway와 Behrens(2002, Suzuki 등 2009 재인용)가 미국의 부모와 일본의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25문항 6점 척도(1=not at all confident, 6=very confident)이다. 10문항은 자녀의

사회, 정서, 인지발달을 잘 지지(support) 하는 모성방략(maternal strategies; 예. ‘아이의 말을 경청한다’,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을 자녀가 연령에 맞게 행동하도록 잘 가르치고 있는 자녀 행동결과(child outcome 예. ‘아이가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아이가 시간을 잘 말하도록 한다’)를 평가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uzuki 등,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번안하여 25문항(5점 척도)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성방략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1이며, 자녀 행동결과의 신뢰도 계수는 .86,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9이다(표5)(부록1).

<표 5> 양육효능감 척도의 문항

하위요인	문항번호
모성방략 (maternal strategies)	1, 2, 3, 4, 5, 6, 7, 8, 9, 10
자녀 행동결과 (child outcome)	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

(2) 정서조절 질문지

CCNES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는 Gross(2003)가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절과 반응 중심 정서조절의 대표적 방략으로 언급한 재해석 및 억제방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이다. 총 10문항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정서를 유발한 선행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 하려는 정도를 평가하는 재해석 6문항과,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억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재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는 CCNES의 단축형 연구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재해석 방략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5, 억제 방략의 신뢰도 계수 .68,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0이었다(표6)(부록1).

<표 6> 정서조절 질문지(ERQ)의 문항

하위요인	문항번호
인지적 재해석	1, 3, 5, 7, 8, 10
정서표현 억제	2, 4, 6, 9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도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2곳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유아들과 어머니 68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와 동의서는 가정에서 작성하여 실험 일에 가져왔다. 모든 관찰과 실험은 유아들이 친숙한 어린이집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였고 영상촬영을 위한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었다. 검사자와 검사상황에 대해 유아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연구에 앞서 검사자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아와 접촉하는 시간을 3~4시간 이상 가졌다.

관찰 실험은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상황과 실험자에게 친숙해 지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날짜에 어머니-유아 협동놀이를 먼저 실시하였고 협동놀이를 실시한 순서대로 유아들의 관찰, 실험을 진행하였다. 유아들의 관찰,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보조 연구자(발달심리 전공 대학원생)가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가 유아의 정서적 경험을 유아의 진술을 통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용, 표현 어휘력검사(REVT, 김영태 등, 2009)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저조한 수행(35% 이하 수행)을 보이는 유아는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어휘력 검사가 끝나고 연구자가 실험실로 들어가 통제노력을 측정하는 만족지연과제, 뽀로로가 말하기를, 정서조절 실험인 실망스러운 선물, MSSB 과제 순서로 실시하였다. 어휘력 검사후에 초콜릿으로 보상한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족지연과제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뽀로로가 말하기를 수행한 후에 선물로 보상한다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망스러운 과제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전체 도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7>와 같으며, 관찰과 실험 절차는 <표 8>과 같다.

<표 7> 전체 연구도구 및 방법

변인	도구 및 방법	도구	방법
유아의 통제노력	-유아행동질문지(CBQ) 27문항		어머니 설문조사
	-만족지연과제		유아실험
	-뽀로로가 말하기를		유아실험
유아의 정서조절	-정서조절척도(ERC) 18문항		어머니 설문조사
	-실망스러운 선물 과제		유아실험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		유아관찰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척도(CCNES) 28문항		어머니 설문조사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과제		유아-어머니 비디오 관찰

<표 8> 관찰실험 절차

회기	내용 및 시간	내용	시간
1회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15분
		어휘력 검사	15-20분
2회		통제노력	3세:5분 4세:7분/5세:10분
		만족지연	10분
		뽀로로가 말하기를	
		정서조절	
		실망스러운 선물	5분
		맥아더 이야기꾸미기	10분

3. 측정도구

1) 유아의 통제노력

(1) 통제노력 척도

유아의 통제노력의 평가를 위해 어머니를 대상으로 Rothbart, Ahadi와 Hershey(1994)가 개발하고, 이경옥(2004)이 타당화한 유아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BQ) 195문항 중 통제노력에 해당하는 27문항, Likert식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활동 중에 주의 초점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주의 집중하기 9문항,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혹은 지시가 있을 때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억제통제 13문항, 하나의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

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전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통제노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이다(표9) (부록1).

<표 9> 통제노력척도의 하위문항 구성

정의와 문항 하위요인	정의	문항
주의 집중하기 (Attention Focusing)	활동 중에 주의 초점을 유지하는 경향 (예: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할 때 매우 집중하면서 한다)	3, 7*, 8*, 15, 17, 19, 22*, 26, 27*
억제통제 (Inhibitory Control)	새롭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혹은 지시가 있을 때 행동을 계획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억압하는 능력 (예: 지시에 잘 따른다)	1, 4, 6*, 9, 10, 11*, 13*, 14, 16, 18, 20*, 21, 25
주의 전환 (Attention Shifting)	하나의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예: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2*, 5, 12*, 23, 24*

* 역산문항

(2) 만족지연과제

Mischel과 그 동료들(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만족지연 패러다임(The Delay of Gratification Paradigm)을 김혜순(2006)이 수정해 사용한 것과 김수혜(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Mischel(1989)은 실험에 사용할 보상으로 유아에게 매력적이고 연령에 적합한 두 개의 보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으며, 마시말로우(marshmallow)와 프레첼(pretzel)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아의 경우 마시말로우와 프레첼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초콜릿을 보상으로 사용하였다.

실험 전에 유아의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어휘력 검사가 끝나면 실험자가 실험실로 들어가 탁자에 앉으며 유아와 인사하고 탁자 위에 접시, 초콜릿 2개, 종을 갖다놓는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오늘 ○○가 그림 맞추기를 잘해 주어 초콜릿을 주려고 해! 그런데 선생님이 불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하거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있는 초콜릿 2개를 줄 거야, 하지만 언제든지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여기의 종을 쳐 그러면 선생님이 곧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초콜릿 1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한 후 종치는 연습을 하고, 과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후 접시위에 초콜릿 1개를 놓고 실험실을 나온다. 연구자가 실험실 문을 닫고 나온 순간부터 3세아는 5분, 4세아는 7분, 5세아는 10분이 경과하거나 유아가 종을 치는 순간까지를 지연시간으로 하고 타이머를 측정하였다(표10).

연령에 따라 지연시간을 구분한 것은 선행연구(김수혜, 2000; 김혜순, 2006; Rha, 1999; Scoville & Chambliss, 1994)에 의거하여 정하였다. 지연시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초로 환산한 수치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연령별로 지연시간의 종료를 다르게 적용했으므로 3세아는 지연시간을 5분, 4세아는 지연시간을 7분, 5세아는 지연시간을 10분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지연시간의 차이를 통제했다.

<표 10> 만족지연과제 실험과정

절차	내용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휘력 검사가 끝나면 실험자가 실험실로 들어가 탁자에 앉으며 유아와 인사하고 탁자 위에 접시, 초콜릿 2개, 종을 갖다놓음. - 실험자는 유아에게 “오늘 ○○가 그림 맞추기를 잘해 주어 초콜릿을 주려고 해! 그런데 선생님이 불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하거든.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있는 초콜릿 2개를 줄 거야, 하지만 언제든지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여기의 종을 쳐 그러면 선생님이 곧 돌아올 거야. 그렇지만 그때는 초콜릿 1개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설명. - 종치는 연습. - 과제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 후 접시위에 초콜릿 1개를 놓고 실험실을 나옴.
지연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가 실험실을 나오는 순간부터 3세아는 5분, 4세아는 7분, 5세아는 10분경과하거나, 유아가 종을 칠 때 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타이머로 측정.
다시 들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경과하거나, 유아가 종을 치면 실험실로 들어가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린 유아에게는 초콜릿을 2개 주고, 종을 친 유아에게는 초콜릿 1개를 줌.

(3) 뽀로로가 말하기를

Carlson과 Wang(2007)이 유아의 통제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게임인 “Simon Say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주인공 “뽀로로가 말하기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자는 10가지의 간단한 동작을 말해주고(예. “눈을 감아요”, “박수를 쳐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규칙을 설명한다. 규칙은 “뽀로로가 말하기를” 할 때만 지시를 따라 행동하고 “뽀로로가 말하기를” 없이 지시를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다(표11). 10번의 수행 중 5번의 지시는 “뽀로로가 말하기를”, 5번의 지시는 “뽀로로가 말하기를”이 없이 한다(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없이, 뽀로로, 뽀로로 없이, 규칙다시 설명하고 뽀로로없이, 뽀로로, 뽀로로없이, 뽀로로없이, 뽀로로).

<표 11> 뽀로로가 말하기를 평가기준(총점범위 0~30)

점수	기준
0점	뽀로로가 말하기를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을 때 뽀로로가 말하기를 “없이”에서 지시가 다 끝나고 움직임 (full commanded movement)
1점	뽀로로가 말하기를에서 움찔, 주춤대기(flinch) 뽀로로 말하기를 “없이”에서 지시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움직임 (partial commanded movement)
2점	뽀로로가 말하기를에서 지시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움직임 (partial commanded movement) 뽀로로가 말하기를 “없이”에서 움찔 주춤대기(flinch)
3점	뽀로로가 말하기를에서 지시가 다 끝나고 움직임 (full commanded movement) 뽀로로가 말하기를 “없이”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음

2) 유아의 정서조절

(1) 정서조절 척도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민(2013)이 번역한 Shield와 Cicchetti(1997)의 Emotion Regulation Checklist(ERC)를 사용하였다. ERC는 유아의 정서적 유연성과 적응성, 강도 분노조절,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의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유아의 기분이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6문항을 제외한 18문항(Likert식 4점척도; 1=거의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을 사용하였다. 9개는 부정적인 정서표현에 해당되며(예. ‘쉽게 화가 폭발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다’, ‘갑자기 울컥하고 쉽게 흥분하는 편이다’, ‘친구가 말을 걸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9문항은 긍정적인 정서표현에 해당된다(예. ‘친구가 말을 걸면 긍정적으로 반응 한다’, ‘흥분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할 때 금방 기분이 회복 된다’). 정서조절 전체 점수는 긍정적 정서표현 점수와 부정적 정서표현을 역산한 값을 합친 것으로 범위는 18-7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을 잘 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0이었다(표12)(부록 1).

<표 12> 유아의 정서조절 척도 하위 요인

하위요인	문항
긍정적 정서표현	1, 2, 3, 4, 6, 9, 11, 15, 17
부정적 정서표현	5, 7, 8, 10, 12, 13, 14, 16, 18

(2) 실망스러운 선물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후 유아가 보이는 정서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고안된 Saarni(1984)의 실험과 Carlson 과 Wang(2007)의 실험 절차를 수정하고 김정민(201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실시하였다. ‘뽀로로가 말하기를’ 게임에 이어 게임의 수행 결과로 선물을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유아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후 자신의 실망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실험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누어 관찰하였다.

실험자는 유아에게 ‘뽀로로가 말하기를’ 게임을 잘 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고, 5개의 선물(스티커, 색종이, 지우개, 사탕세트, 부러진 연필)을 보여주고 이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것부터 골라 1~5까지 순서를 매기도록 했다. 유아가 선물을 고르면 실험자는 선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나간다. 실험자는 유아가 5번째로 고른 선물(대부분 부러진 연필)을 선물상자에 넣고, 상자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들어온다. 유아에게 선물 봉투를 주고 직접상자를 열어보도록 한다. 상자를 다 열면 실험자는 유아에게 “어때 이 선물 좋지?” “아까 이 선물이 제일 좋다고 했지?” “봐봐”라고 말한 후 20초 동안 실험자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다. 이후에 실험자는 잠시 밖에 나갔다고 유아에게 말하고 20초 후에 유아가 첫 번째로 받고 싶다고 고른 선물

을 가지고 다시 실험실로 들어와 “선생님이 선물을 잘 못 포장했네.. 착각 했
었어,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서 선물을 바꾸어 준다. ‘실망스러운 선물’ 실험과
정은 <표 13>과 같다.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Saarni(1984)가 사용한 정서에 대한
얼굴표현 부호화 체계(coding system)를 보완하여 사용한 Carlson &
Wang(2007)의 부호와 체계를 수정해 사용했다. Tsai, Louie, Chen와
Uchida(2007)는 아동의 감정사회화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하였다. 유아의 긍정
적 정서에 적합한 표정에 있어, 유럽계 미국 유아는 대만 등의 동양의 유아
보다 행복을 나타내는 표정이 더 극적(exite)임을 밝히고 동서양 유아간의 정
서표현의 차이를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서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부호화
체계를 동양문화권인 우리 유아들에게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이 관찰을 통해
제시되어 기존의 부호화 체계에서 이행적 차원으로 분류된 ‘약간 웃음-다문
입을 약간 벌리기’, ‘고맙습니다’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는 긍정적 차원
으로, ‘웃음이 갑작스럽게 없어짐’은 부정적 차원으로 재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측정 시간은 유아가 선물을 발견 한 후 직후의 15초와 실험자가 문을 닫고
나간 직후의 15초 동안의 반응을 분석하였고 15초 동안 유아가 보이는 반응을
3초 단위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에서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에
해당되는 얼굴표정이나 언어표현이 나타나면 1점, 나타나지 않으면 0점을 부
여하여 채점하였다. 긍정적 표현은 얼굴표정 6개, 언어표현 2개 총 8개 범주
로, 부정적 표현은 얼굴표정 5개, 언어표현 3개, 몸짓 1개의 총 9개의 범주
구성하였다. 긍정적 표현의 총점 범위는 0-40 점, 부정적 표현의 총점 범위는
0-45 점이다. 실망스러운 선물 정서표현 반응평가표는 <표 14>와 같다.

<표 13> 실망스러운 선물 실험절차

구성	실험절차
선물 고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자가 실험실로 들어와 뽀로로 게임을 잘 해서 선물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 - 5가지 선물을 제시하고 유아에게 받고 싶은 선물의 순서를 매기도록 함 - 실험자는 선물을 가지고 실험실을 나가 유아가 가장 원하지 않던 선물(5번째)을 포장함
↓	
실망스러운 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자는 포장한 선물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 유아에게 선물을 꺼내보라고 함. - 20초 동안 실험자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함 - 실험자는 밖으로 나가고 유아는 20초 동안 혼자 있게 됨
↓	
사후 선물바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자가 다시 들어가 실수로 선물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첫 번째로 받고 싶어 했던 선물과 바꾸어 줌

유아가 실험자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더 많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부정적 표현은 적게 한 경우 유아가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서조절 점수는 유아가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후 실험자 앞에서 보인 긍정적, 부정적 표현이 실험자가 나간 후 얼마나 변화했는지, 유아가 실험자가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실망스러운 정서를 잘 조절하여 표현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변화량을 뜻한다. 실험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긍정적 정서 표현 점수의 차이와 부정적 정서 표현 점수의 차이를 합산해 산출한 정서조절 총점수의 범위는 -5~40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정서조절을 잘 한 것으로 본다.

<표 14> 정서표현 반응 평가표(Carlson & Wang, 2007)

범주	내용
	각 1점
긍정적 차원	_____ 이빨을 보이며 크게 웃기
	_____ 입은 다물고 있으나 크게 웃기
	_____ 열정적으로 “고맙습니다” 말하기
	_____ 좋은 의미로 놀라서 눈썹을 올리기
	_____ 실험자와 시선접촉하며 웃는 눈
	_____ 웃으며 눈에 주름지기
	_____ 약간 웃음 - 다문 입을 약간 벌리기
	_____ “고맙습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_____ 긍정적 차원 점수:
일시적(이행) 차원	_____ 약간 웃으며, 고통스러운것 처럼 눈살 찌푸리기
	_____ 입밖으로 혀 내밀고 넣기
	_____ 선물과 실험자 사이를 2번 이상 응시하기
	_____ 이를 깨물기
	_____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만지기
	_____ 머리를 젖히고 돌리기
	_____ 의심쩍은 듯 입으로 소리내기
	_____ 비웃기, 피식 웃기
_____ 말하기(입을 열거나 다물고)	
	각 1점
부정적 차원	_____ 웃음이 갑작스럽게 없어짐
	_____ 코를 찡그리기
	_____ 짜증이나 실망한 듯 이마를 찡그리기
	_____ “감사하다”는 말을 생략하기
	_____ 당황해서 오무라든 입
	_____ 딱 일직선으로 다문 입술
	_____ 실험자와의 시선접촉 피하기
	_____ 부정적인 콧소리(코웃음, 어)
	_____ 부정적인 말하기 (예:부러진 연필이잖아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 “어!이거 아닌데”/스티커“(받고싶은선물)가 아니잖아”)
	_____ 어깨를 으쓱하기
_____ 부정적 차원 점수:	

정서표현 반응에 대한 평가는 2명의 평정자(발달심리전공 석사1명과 본 연구자가)가 실시했다. 1차에서는 2명의 평정자가 기본적인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했고, 차이점과 논의점을 충분히 합의한 후 2차 평정자가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 결과 산출된 상관계수(r)의 범위는 긍정적 차원, 이행적 차원, 부정적 차원에 대해 .76-.92였다(부록 6).

(3)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인형놀이를 통한 이야기 완성검사인 MacArthur Story-Stem Battery: MSSB를 실시한 후, 박진아(2006)가 번안한 Fonagy 와 Target(2000)의 MSSB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하고 이해란, 신의진, 이경숙(1999)이 번안한 MSSB는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을 제시한 뒤, 제시된 상황 이후 이야기를 꾸며보도록 요구하는 반 구조화된 인형역할놀이 이야기 꾸미기 과제로서 도입부와 종결이야기 1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박진아, 2006). 본 연구에서는 warm-up 에피소드인 생일잔치, 엄마의 두통(mom's headache: 어머니와의 갈등상황), 잃어버린 열쇠(lost key: 부모 간 갈등상황)의 총 3개의 에피소드를 제시하였다. 생일잔치를 제외한 두 개의 에피소드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에피소드(Sher-Censor & Oppenheim, 2004)이며 이는 본 연구의 유아들의 정서조절을 관찰하며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이므로 선정하였다. 각 에피소드는 <부록 >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검사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절차(박진아, 2006)에 따라 각 에피소드를 연구자가 제시한 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질문한 뒤, 유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야

기는 네가 만드는 이야기란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돼” 라는 비지시적 자극을 사용하였다. 또한 마지막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니?” 라로 질문함으로써 유아 스스로 이야기를 끝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박진아, 정문자(2007)가 번안한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Fonagy, Target, 2000)는 이야기 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유아가 보이는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관찰하는 측정척도로서 과잉억제(down-regulation), 과장표현(exaggeration), 정서조절실패(failure of regulation)의 세 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이란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반응 측면에서 상황적 맥락에 맞지 않는 극단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잉억제, 과장표현과 정서조절 실패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표15). 정서적 반응은 유아의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 제스처 등을 관찰하면서 부정적 정서표현의 강도와 유연성 및 맥락적 적절성을 관찰 및 측정하였다. 행동적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보이는 상황적 맥락에 부적절한 행동특성을 관찰 및 측정하였다. 인지적 반응은 아동이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갈등상황을 인지적으로 다루고 대처하는 과정을 관찰 및 측정하였다(박진아, 정문자, 2007). 본 척도는 각 하위영역에 대해 1점에서 12점에 이르는 행동특성이 명시된 기술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정서조절을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또한 이야기 꾸미기 과제의 분석은 본 도구의 원저자인 MacArthur Narrative Group 중 한명인 Dr. Robinson에게 훈련 받은 아동학자 1인과 임상심리학자 1인으로부터 30시간 이상 이 도구에 대해 훈련을 받은 아동상담전공 석사 2명이 수행했다.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산출된 상관계수(r)는 .87이었다(부록 4).

<표 15>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 하위 영역 내용과 평정기준의 예

하위영역	내용
과잉억제 (down-regulation)	<p>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함</p> <p>정서적 반응: 얼굴표정이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으며 이야기를 꾸미는 유아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어조가 단조로움</p> <p>행동적 반응: 머리를 심하게 끄거나 손가락으로 책상을 긁음</p> <p>인지적 반응: 이야기를 꾸미면서 딜레마 갈등상황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야기 내에서 갈등상황 자체를 부인함</p>
과장표현 (exaggeration)	<p>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맥락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과장되게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의미함</p> <p>정서적 반응: 매우 화난 표정을 짓고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며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를 꾸밈</p> <p>행동적 반응: 책상을 때리거나 검사도구를 거칠게 다루고 던짐</p> <p>인지적 반응: 딜레마 갈등상황에서 제시되는 수준보다 갈등이 더 고조되거나 증폭되고 유아가 오히려 갈등상황을 더 만들어냄</p>
정서조절의 실패 (failure of regulation)	<p>유아의 정서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며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와 관찰자가 느끼는 유아의 정서가 서로 모순되거나, 유아가 맥락에 부적절하게 기이한 형태로 정서표현을 하는 경향을 의미함</p> <p>정서적 반응: 화를 내다가 갑자기 웃는 등 정서표현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며 비 일관적임. 유아가 이야기 맥락 내에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지만 유아의 얼굴표정에서는 미소가 관찰됨</p> <p>행동적 반응: 갑자기 크게 울거나 검사실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검사자를 때리거나 공격함</p> <p>인지적 반응: 제시된 딜레마 상황과 상관없는 기이한 내용의 이야기를 꾸미며, 이야기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음</p>

3)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1)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양식 척도

예비연구를 통해 개발된 CCNES 단축형 28문항을 사용했다. 28문항은 문제·정서 초점 반응 12문항, 처벌·최소화 반응 8문항, 표현격려 반응 5문항, 고통감 반응 3문항 등이었다.

(2)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어머니와 유아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하는 협동구성과제를 실시하였다. 실험 과정은 사전 위밍업 절차인 동화책 읽기와 나무블록 놀이로 구성되었다. 유아와 어머니가 함께 실험실에 들어와 탁자 앞에 앉은 후 실험자는 유아와 어머니에게 “오늘 ○○가 엄마와 함께 두 가지 놀이를 하는데 첫 번째는 동화책을 함께 읽는 것, 두 번째는 블록놀이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한 후 그림 동화책 4권(비교적 글자가 없는 것 2권, 글자가 어느 정도 있는 것 2권)을 제시하고, 어머니와 유아가 그 중 1권을 선택해서 읽도록 한다. 실험자는 5분간 실험실을 나가 있겠다고 말하고 나가 5분 뒤에 들어간다. 동화책 읽기가 끝나면 실험자는 유아용 지능검사의 토막 짜기 용 나무블록을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 나무블록 9개를 탁자위에 꺼내 놓으며 “4개의 그림판을 차례대로 보여줄 것이고 그림판의 그림과 같이 블록과 함께 맞추는 놀이입니다.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제가 그만 이라고 할 때까지 맞춰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카드는 나무블록 4개를 사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카드는 나무블록 9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한 후 협동놀이를 시작한다. 블록 맞추기 놀이가 끝나면 어머니에게 유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과제이며, 유아들의 행동에 어머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놀이였음을 설명한다.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절차는 <표 16>과 같다.

어머니-유아 행동의 본질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협동구성과제(Miriam et al., 2007; 이경숙 역, 2009)는 어머니-유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비디오 평가도구이다. 어머니와 유아가 테이블 앞에 앉아 주어진 나무 블록으로 가능한 한 많은 블록을 사용하여 무엇이든 만들도록 요구된 상황에서 어머니 유아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평가방법이다. 원래의 채점 체계는 5분간의

상호작용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 유아 그리고 어머니-유아 쌍으로 나뉘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 목소리와 얼굴표정, 그리고 상호작용의 포괄적인 특징들로 나뉘었다. Beebe(2005)의 미시적 접근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상호작용의 미세한 부분을 고려하는 채점 체계를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아와 부모의 5분간의 전체 행동 대신 10초 간격으로 발생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10초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암시적이고 비언어적이며 포착하기 어려운 변화를 고려하고, ‘애착 촉진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점체계가 변경되었다.

<표 16>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관찰 절차

구성	관찰절차
warm-up 그림동화책 읽기 (5분)	- 실험자가 실험실로 들어와 인사하고 두 가지 놀이(책읽기, 블록놀이)를 한다고 설명 - 동화책 4권을 제시하고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읽고 싶은 책 1권을 골라 5분 동안 읽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실험실을 나감
	↓
블록놀이 (5분)	- 5분후 실험자는 블록이 들어있는 상자와 그림판 4개를 가지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탁자위에 블록을 꺼내 놓음 - 9개의 블록으로 4개의 그림판의 그림을 어머니와 유아가 함께 맞추는 놀이이며 시간제한이 있음을 설명 - 실험자는 순서대로 그림판을 보여주고 1, 2, 3번 카드는 1분의 시간제한을 주고, 4번 카드는 2분의 시간의 제한을 줌
	↓
사후 실험설명	- 4번째 카드의 그림을 다 맞추고 나서 어머니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다양한 나무블록 대신 유아용 지능검사의 토막 짜기 블록 9개를 가지고 4개의 그림판을 맞추도록 하여 5분간 관찰하였다. 그림판 3개는 각각 1분의 제한 시간을 주고, 그림판 1개는 2분간의 시간제한을 주고 맞추도록 하여 5분간 유아의 행

동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관찰하여 측정하였다. 유아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어머니와 함께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반응에 어머니가 보이는 비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 전반적인 반응을 10초 간격으로 5분간 측정하였다(표17). 협동구성과제를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평가는 2명의 평정자(발달심리전공 석사 1명과 본 연구자)가 실시했다. 1차에서는 2명의 평정자가 기본적인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했고, 차이점과 논의점을 충분히 합의한 후 2차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표 17> 협동구성과제를 통한 어머니의 양육행동평가

범주	내용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Parent Nonverbal Ratings)	어머니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기술의 효과성을 평정하며, 얼굴표정, 목소리톤, 제스처, 공간의 배치, 신체적 접촉 방식, 기타 비언어적 특징 등이 포함된다.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Parent Verbal Ratings)	어머니가 유아와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적 기술을 평정한다. 어머니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해 어떤 목소리로 말하는지에 중점을 둔다.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평정 (Parent Global Ratings)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보이는 태도와 반응을 전반적으로 평정한다. 태도를 어떻게 취하고 드러내는지에 중점을 둔다.

그 결과 평정자간 신뢰도 검증 결과 산출된 상관계수(r)의 범위는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 평정결과 산출된 상관계수(r)의 범위는 .81-.89였다(부록 5).

4. 자료분석

본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와 AMOS 5.0을 사용했다. CCNES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고,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설문지, 협동놀이, 관찰실험 등의 상관 연구를 위해 코딩 훈련을 실시했으며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집단간 비교를 위해 다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관련 변인간의 단순상관분석,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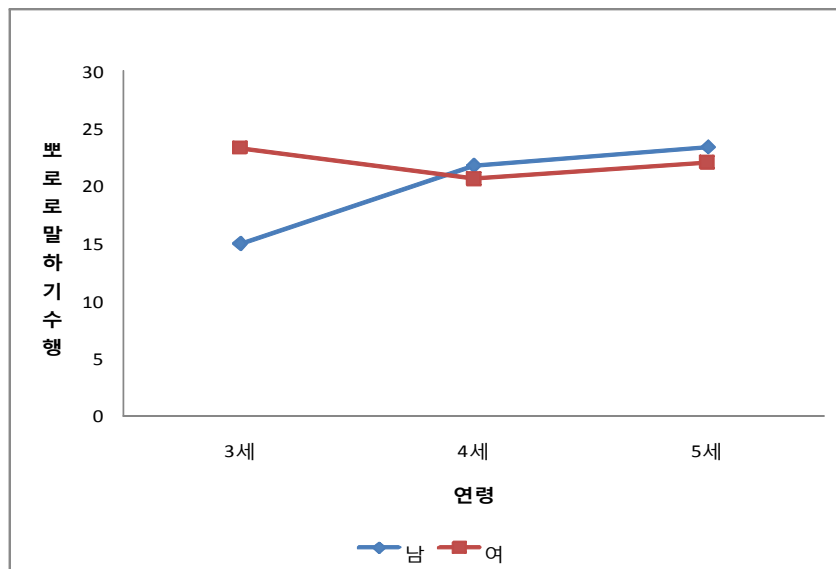
IV. 결과

1. 유아의 성과 연령별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유아의 정서조절의 차이

1) 유아의 성과 연령별 통제노력의 차이

언어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용언어를 공변량으로 해서 유아의 성과 연령별 통제노력의 차이를 검증했다. 그 결과 뽀로로가 말하기에 있어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F=4.36, p<.05$)(표18). 3세 때에는 남아(M:14.98)가 여아(M:23.35)에 비해 뽀로로가 말하기 성공점수가 매우 낮았으나, 4, 5세가 되면서 남아(4세 M:21.82, 5세 M:23.41)가 여아(4세 M:20.68, 5세 M:22.0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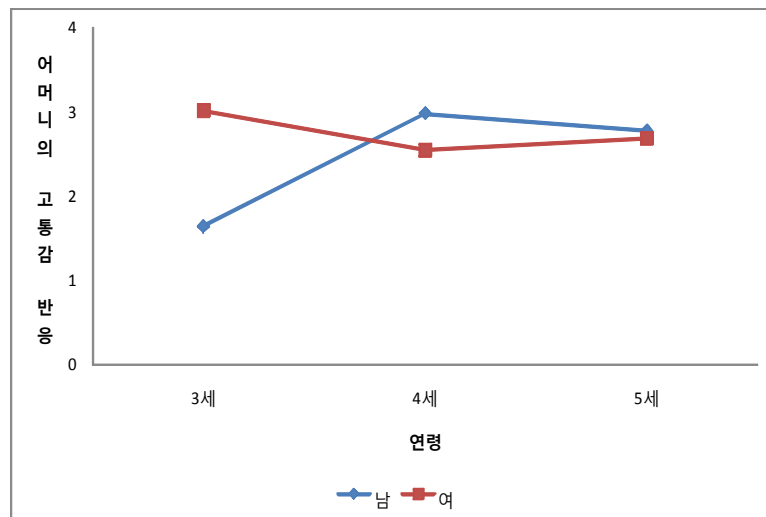
<그림 2> 뽀로로가 말하기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2) 유아의 성과 연령별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차이

언어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용언어를 공변량으로 해서 유아의 성과 연령별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차이를 검증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CCNES) 중 고통감은 유아의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F=3.53, p<.05$)(표19). 3세 때에는 남아의 어머니(M:1.64)가 여아의 어머니(M:3.02)에 비해 고통감이 매우 낮다고 보고했으나, 4, 5세가 되면서 남아의 어머니(4세 M:2.98, 5세 M:2.77)가 여아의 어머니(4세 M:2.55, 5세 M:2.69)에 비해 고통감이 약간 높다고 보고했다(그림3).

<그림 3> 어머니의 고통감 반응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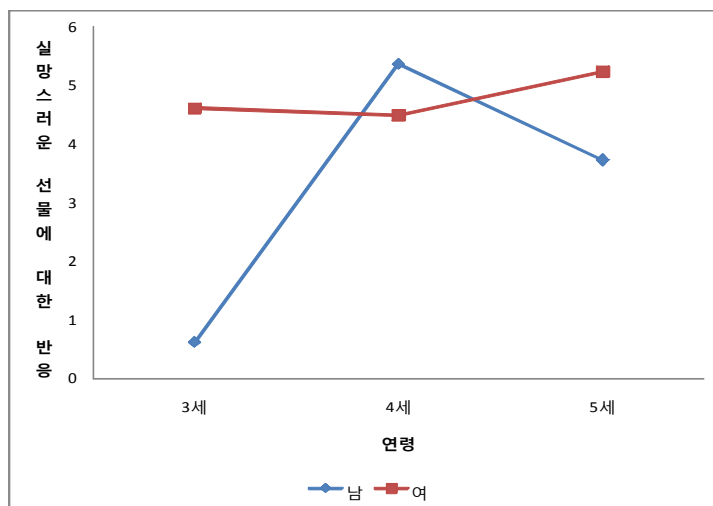


3) 유아의 성과 연령별 정서조절의 차이

언어능력을 통제하기 위해, 수용언어를 공변량으로 해서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의 차이를 검증했다. 그 결과 실망스러운 선물

에 대한 반응이 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88, p<.05$)(표 20). 여아가 남아보다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정서조절을 잘 했다. 또한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반응에 있어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F=3.08, p<.05$). 3세 때에는 남아(M:61)가 여아(M:4.61)에 비해 정서조절이 매우 낮았으나, 4세 때에는 남아(M:5.37)가 여아(M:4.49)에 비해 정서조절이 높아졌고, 5세 때는 남아(M:3.73)가 여아(M:5.24)에 비해 정서조절이 낮아졌다(그림4).

<그림 4>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표 18> 유아의 성과 연령별 통제노력의 차이

연령	통제 노력 /성별		어머니 보고(CBQ)									관찰실험					
			주의집중하기			억제통제			주의전환			만족지연시간			뽀로로가 말하기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3세	4.66 (.35)	4.74 (.30)	4.70 (.32)	4.75 (.36)	5.08 (.31)	4.91 (.33)	4.30 (.37)	4.96 (.32)	4.63 (.34)	62.09 (18.00)	74.09 (15.69)	68.45 (16.84)	14.98 (2.30)	23.35 (2.00)	19.16 (2.15)		
4세	4.38 (.23)	4.81 (.25)	4.59 (.24)	5.06 (.23)	5.01 (.26)	5.03 (.24)	4.65 (.24)	4.66 (.27)	4.65 (.25)	71.43 (11.79)	51.43 (13.02)	61.43 (12.40)	21.82 (1.51)	20.68 (1.66)	21.25 (1.58)		
5세	5.21 (.27)	4.85 (.22)	5.03 (.24)	5.30 (.28)	5.02 (.23)	5.16 (.25)	4.60 (.29)	4.36 (.24)	4.48 (.26)	64.18 (14.14)	49.96 (11.69)	57.07 (12.91)	23.41 (1.81)	22.08 (1.49)	22.74 (1.65)		
F값(성별)	.06		.00			.37			.45			1.97					
F값(연령)	1.38		1.23			.18			.18			1.20					
사후검증(Scheffe)	NS		NS			NS			NS			NS					
F값(성*연령)	1.32		.56			1.17			.69			4.36*					
사후검증(Scheffe)	NS		NS			NS			NS			남3세 < 남4세, 남5세, 여3세, 여5세					

*p<.05 **p<.01

NS: Not Significant

<표 19> 유아의 성과 연령별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차이

양육 행동 /성 연령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보고(CCNES)												협동놀이								
	문제·정서대처			처벌·최소화			표현격려			고통감			비언어적 반응			언어적 반응			전반적 반응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3세	3.59 (.20)	3.99 (.18)	3.79 (.19)	1.54 (.29)	2.03 (.25)	1.78 (.27)	3.41 (.29)	3.59 (.25)	3.50 (.27)	1.64 (.45)	3.02 (.39)	2.33 (.42)	10.67 (2.31)	12.58 (2.01)	11.62 (2.16)	24.13 (3.05)	20.24 (2.66)	22.18 (2.85)	27.65 (3.52)	29.88 (3.07)	28.76 (3.29)
4세	4.01 (.13)	3.98 (.15)	3.99 (.14)	1.81 (.19)	1.73 (.21)	1.77 (.20)	3.77 (.19)	3.49 (.21)	3.63 (.20)	2.98 (.29)	2.55 (.32)	2.76 (.30)	10.66 (1.51)	12.18 (1.67)	11.42 (1.59)	17.24 (2.00)	20.53 (2.21)	18.88 (2.10)	23.07 (2.31)	23.59 (2.55)	23.33 (2.43)
5세	4.36 (.16)	4.00 (.13)	4.18 (.14)	2.10 (.23)	1.88 (.19)	1.99 (.21)	3.97 (.23)	3.66 (.19)	3.81 (.21)	2.77 (.35)	2.69 (.29)	2.73 (.32)	9.84 (1.81)	9.03 (1.49)	9.43 (1.65)	19.52 (2.40)	18.63 (1.98)	19.07 (2.01)	28.84 (2.77)	21.86 (2.28)	25.35 (2.52)
F값(성별)	.00			.11			.58			1.15			.38			.07			.42		
F값(연령) 사후검증 (Scheffe)	1.77 NS			.51 NS			.59 NS			.68 NS			.72 NS			.85 NS			1.78 NS		
F값 (성*연령) 사후검증 (Scheffe)	2.71 NS			1.22 NS			.65 NS			3.53* NS			.36 NS			1.23 NS			1.71 NS		

*p<.05

NS: Not Significant

<표 20> 유아의 성과 연령별 정서조절의 차이

정서조절 /성별 연령	어머니보고			관찰									실험		
	정서조절(ERC)			맥아더이야기 (과잉억제)			맥아더이야기 (과장표현)			맥아더이야기 (정서조절실패)			실망스러운 선물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3세	2.88 (.14)	3.08 (.12)	2.98 (.13)	3.17 (.88)	3.81 (.76)	3.49 (.82)	.88 (.39)	1.25 (.34)	1.06 (.36)	1.53 (.62)	2.05 (.54)	1.79 (.58)	.61 (1.28)	4.61 (1.12)	2.61 (1.20)
4세	3.04 (.09)	3.03 (.10)	3.03 (.09)	3.73 (.57)	4.34 (.63)	4.03 (.60)	1.65 (.25)	1.20 (.28)	1.42 (.26)	2.19 (.41)	2.16 (.45)	2.17 (.43)	5.37 (.84)	4.49 (.93)	4.93 (.88)
5세	3.13 (.11)	3.07 (.09)	3.10 (.10)	3.68 (.69)	4.21 (.57)	3.94 (.63)	1.83 (.30)	1.81 (.25)	1.82 (.27)	2.36 (.49)	2.99 (.40)	2.67 (.44)	3.73 (1.01)	5.24 (.83)	4.48 (.92)
F값(성별)	.24			1.22			.07			.95			3.88*		
F값(연령)	.35			.27			2.11			1.03			2.34		
사후검증(Scheffe)	NS			NS			NS			NS			NS		
F값(성*연령)	.59			.00			.77			.33			3.08*		
사후검증(Scheffe)	NS			NS			NS			NS			남3세<남4세,여5세		

*p<.05

NS: Not Significant

2. 유아의 통제노력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통제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보고 질문지(CBQ)와 실험(‘만족지연 과제’, ‘뽀로로가 말하기’)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보고 질문지(ERC)와 관찰(‘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 실험(실망스러운 선물)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21).

1)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CBQ)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CBQ)의 3개 하위요인 주의집중하기($r=.28$, $p<.01$), 억제통제($r=.28$, $p<.01$), 주의전환($r=.27$, $p<.01$) 모두 실험으로 통제노력을 측정한 만족지연시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CBQ)의 3개의 하위요인 주의집중하기($r=.32$, $p<.01$), 억제통제($r=.61$, $p<.01$), 주의전환($r=.61$, $p<.01$) 모두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ERC)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의 억제통제가 관찰을 통해 정서조절을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의 과잉억제($r=-.25$, $p<.05$), 주의전환은 맥아더 이야기꾸미기의 정서조절실패($r=-.30$,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과 실험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는 Liew, Eisenberg 및 Reiser(2004), Carlson과 Wang(2007), 김정민(201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가설 2인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이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2) 실험으로 측정한 유아의 통제노력(‘만족지연과제’, ‘뽀로로가 말하기’)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실험으로 측정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만족지연 시간은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ERC)과 관찰로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와 상관이 없었으나, 실험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r=.2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실험으로 유아의 통제노력을 측정한 뽀로로가 말하기는 유아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없었다.

3.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 보고 질문지(CCNES)와 관찰(어머니-유아 협동놀이)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보고 질문지(ERC), 관찰(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과제)과 실험(실망스러운 선물)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22).

1) 어머니가 보고한 양육행동(CCNES)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CCNES)은 문제·정서 초점, 처벌·최소화, 표현격려 반응, 고통감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문제·정서초점과 표현격려 반응은 지지반응, 처벌·최소화와 고통감은 비지지반응으로 분류된다. 문제·정서초점반응($r=.46, p<.01$), 표현격려 반응($r=.40, p<.01$), 지지반응($r=.51, p<.01$)은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정서조절(ERC)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고통감($r=-.25, p<.05$)과 비지지반응($r=-.26, p<.05$)은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정서조절(ERC)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지은(2014)의 연구와 일

치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가설 2인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이 관계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관찰과 실험으로 측정된 유아의 정서조절과는 상관이 없었다.

2) 관찰로 측정한 어머니 양육행동(어머니-유아 협동놀이)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한 어머니-유아 협동놀이는 비언어적 반응, 언어적 반응, 전반적 반응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다. 언어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을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의 정서조절 실패($r=-.24,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어적 반응을 하는 것과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은 관계가 있었다. 반면 어머니-유아 협동놀이 중 비언어적 반응과 전반적 반응은 유아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없었다.

<표 21> 유아의 통제노력과 정서조절과의 상관

(N=68)

		1	2	3	4	5	6	7	8	9	10
통제 노력	보 고	1.CBQ1(주의집중하기)	1								
		2.CBQ2(억제통제)	.51**	1							
		3.CBQ3(주의전환)	.31**	.54**	1						
	실 험	4.만족지연시간 실험	.28*	.28**	.27*	1					
		5.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9	.19	.18	.28*	1				
정서 조 절	보 고	6.어머니보고(ERC)	.32**	.61**	.61**	.11	-.01	1			
		관 찰	7.맥아더이야기1(과잉억제)	-.11	-.25*	-.00	-.00	-.08	-.15	1	
	8.맥아더이야기2(과장표현)		-.04	-.01	-.13	.09	.17	-.15	-.35**	1	
	9.맥아더이야기3(정서조절실패)		-.03	-.23	-.30*	-.10	.00	-.33**	.17	.40**	1
	실 험	10.실망스러운 선물 실험	-.04	.03	.20	.24*	.10	.10	-.21	.08	-.02
M		4.77	5.05	4.58	61.39	21.35	3.05	3.87	1.50	2.30	4.26
(SD)		(.83)	(.85)	(.87)	(43.84)	(6.64)	(.34)	(2.04)	(.94)	(1.47)	(3.38)

*p<.05 **p<.01

<표 22>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과의 상관

(N=6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양 육 행 동	C 1.지지1(문제·정서초점)	1													
	C 2.지지2(표현격려)	.53**	1												
	N 3.비지지1(차별·최소화)	-.29*	-.22	1											
	E 4.비지지2(고통감)	-.08	-.15	.43**	1										
	S 5.지지	.93**	.79**	-.30*	-.12	1									
	S 6.비지지	-.24*	-.23	.92**	.75**	-.27**	1								
	실 협	7.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4	.07	-.13	-.01	.05	-.10	1						
	8.협동놀이(언어적 반응)	-.15	-.15	-.24*	-.27*	-.16	-.29*	-.00	1						
	9.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8	.04	-.19	-.21	.07	-.24*	.45**	.40**	1					
정 서 조 절	보 고	10. 어머니보고(ERC)	.46**	.40**	-.21	-.25*	.51**	-.26*	-.15	-.05	.02	1			
	관 찰	11. 맥아더이야기1(과잉억제)	.10	-.04	.14	.14	.05	.17	-.10	-.19	-.07	-.15	1		
	12. 맥아더이야기2(과장표현)	.08	.05	-.13	.01	.07	-.08	.13	.05	.08	-.15	-.35**	1		
	13. 맥아더이야기3(정서조절실패)	.05	.00	.10	.10	.03	.12	.05	-.24*	-.09	-.33**	.17	.40**	1	
실 협	14. 실망스러운 선물	.08	.13	.04	.01	.11	.03	-.08	.04	-.00	.10	-.21	.08	-.02	1
M		4.01	3.67	1.86	2.66	2.92	2.07	10.63	19.64	25.25	3.05	3.87	1.50	2.30	4.26
(SD)		(.50)	(.69)	(.69)	(1.09)	(.49)	(.68)	(5.43)	(7.37)	(8.68)	(.34)	(2.04)	(.94)	(1.47)	(3.38)

*p<.05 **p<.01

4.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어머니 보고)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뿌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정서조절(ERC 설문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52%를 설명했고($F=11.06, p<.01$),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6.5%를 추가로 설명했다($F=5.87, p<.01$). 특히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beta=.38, p<.01$), 주의전환($\beta=.36, p<.01$)과 CCNES 중 문제·정서초점 반응($\beta=.23, p<.05$)이 정서조절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억제통제와 주의전환, 문제·정서초점 반응을 많이 할수록 정서조절을 잘하였다(표23).

<표 23>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ERC)에 미치는 영향 (N=68)

회귀값	B	β	t	R ²	ΔR^2	F
통제노력/양육행동						
(상수)	3.01		18.33**			
수용언어	.00	.03	.23	.001	.001	.055
(상수)	1.56		6.37**			
수용언어	.00	.06	.59			
주의집중하기	.00	.01	.13			
억제통제	.16	.41	3.36**	.521	.520	11.06**
주의전환	.17	.44	4.02**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10	-1.05			
뿌로로가 말하기 실험	-.00	-.18	-1.70			
(상수)	1.43		3.61**			
수용언어	.00	.03	.29			
주의집중하기	-.02	-.05	-.49			
억제통제	.15	.38	3.02**			
주의전환	.14	.36	2.92**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15	-1.53			
뿌로로가 말하기 실험	-.00	-.15	-1.33			
문제·정서초점	.16	.23	2.07*	.586	.065	5.87**
표현격려	.01	.03	.29			
처벌·최소화	.00	.00	.04			
고통감	-.02	-.07	-.74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0	-.10	-.99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0	-.09	-.85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0	.02	.19			

**p<.01

2)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과잉억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뿌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10.4%를 설명했고($F=2.21, p<.0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13.7%를 추가로 설명했다($F=2.33, p<.05$). 특히 어머니가 보고한 억제통제($\beta=-.45, p<.01$)가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억제통제가 잘 될수록 과잉억제를 덜 하였다(표24).

<표 24>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과잉억제)에 미치는 영향 (N=68)

회귀값	B	β	t	R ²	ΔR^2	F
통제노력/양육행동						
(상수)	4.28		4.36**			
수용언어	-.00	-.05	-.42	.003	.003	.18
(상수)	6.43		3.22**			
수용언어	.00	.06	.38			
주의집중하기	-.00	-.00	-.02			
억제통제	-.90	-.37	-2.27*	.107	.104	2.21*
주의전환	.44	.19	1.25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11	.85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3	-.11	-.78			
(상수)	3.85		1.20			
수용언어	.00	.06	.39			
주의집중하기	.01	.00	.04			
억제통제	-1.09	-.45	-2.68**			
주의전환	.63	.27	1.64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02	.15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6	-.22	-1.41			
문제·정서초점	1.00	.24	1.60	.244	.137	2.33*
표현격려	-.24	-.08	-.54			
처벌·최소화	.71	.24	1.58			
고통감	.03	.01	.13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3	-.09	-.67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6	-.23	-1.54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2	.09	.62			

*p<.05 **p<.01

3)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과장표현: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실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한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장표현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8.4%를 설명했고($F=2.93, p<.0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10.5%를 추가로 설명했다($F=2.96, p<.05$). 특히 어머니가 보고한 주의전환($\beta=-.43, p<.05$)이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장표현,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beta=.37, p<.05$)이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장표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주의전환이 증가할수록 과장표현을 덜 했고,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이 증가할수록 과장표현이 증가했다(표25).

4)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 (실망스러운 선물)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노력(어머니가 보고한 CBQ 설문지, 만족지연 실험,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어머니가 보고한 CCNES 설문지, 협동놀이)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표 25>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과장표현)에 미치는 영향 (N=68)

회귀값	B	β	t	R ²	ΔR^2	F
통제노력/양육행동						
(상수)	1.45		3.20**			
수용언어	.00	.01	.10	.00	.00	1.11
(상수)	2.08		2.22*			
수용언어	-.01	-.17	-1.13			
주의집중하기	-.07	-.06	-.44			
억제통제	.13	.12	.73	.084	.084	2.93*
주의전환	-.26	-.25	-1.63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05	.39			
빠로로가 말하기 실험	.04	.27	1.89			
(상수)	1.86		1.21			
수용언어	-.01	-.21	-1.38			
주의집중하기	-1.96	-.17	-1.11			
억제통제	.21	.19	1.09			
주의전환	-.46	-.43	-2.47*			
만족지연시간 실험	.00	.08	.61			
빠로로가 말하기 실험	.05	.37	2.28*			
문제·정서초점	.17	.09	.57	.189	.105	2.96*
표현격려	.14	.10	.68			
차별·최소화	-.33	-.24	-1.55			
고통감	.02	.02	.17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0	.03	.20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1	.12	.77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0	.04	.24			

*p<.05 **p<.01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수용언어가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통제했다. 그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이 정서조절의 10.7%를 설명했고($F=2.36, p<.05$),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추가될 때 정서조절의 1.6%를 추가로 설명했다($F=2.25, p<.05$). 특히 실험으로 통제노력을 측정한 만족지연시간($\beta=.35, p<.05$)이 실망스런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했다. 만족지연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서조절이 잘 되었다(표26).

<표 26> 유아 통제노력과 부모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 정서조절(실망스러운 선물)에 미치는 영향 (N=68)

회귀값	B	β	t	R ²	ΔR^2	F
통제노력/양육행동						
(상수)	.62		.40			
수용언어	.06	.28	2.41*	.081	.081	5.82**
(상수)	1.02		.30			
수용언어	.08	.32	2.19*			
주의집중하기	-.45	-.11	-.79			
억제통제	-.79	-.19	-1.25	.188	.107	2.36*
주의전환	.00	.18	1.26			
만족지연시간 실험	1.30	.33	2.37*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7	-.14	-1.06			
(상수)	-1.25		-.22			
수용언어	.08	.34	2.11*			
주의집중하기	-.37	-.09	-.58			
억제통제	-.91	-.23	-1.32			
주의전환	.00	.15	.97			
만족지연시간 실험	1.37	.35	2.10*			
뽀로로가 말하기 실험	-.08	-.15	-.98			
문제·정서초점	-.07	-.01	-.07	.204	.016	2.25*
표현격려	.41	.08	.54			
처벌·최소화	.50	.10	.66			
고통감	.06	.02	.14			
협동놀이(비언어적 반응)	-.02	-.03	-.26			
협동놀이(언어적 반응)	.01	.03	.21			
협동놀이(전반적 반응)	-.00	-.01	-.07			

*p<.05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적인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보고뿐 아니라, 유아에 대한 관찰(맥아더이야기꾸미기)과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어머니-유아 상호협동놀이), 실험(만족자연, 뽀로로가 말하기, 실망스런 선물)을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첫째, 수용언어를 통제하여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유아의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및 유아의 정서조절이 차이가 있는지 비교했다. 둘째,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정서조절의 차이를 검증했다. 그 결과 실험으로 통제노력을 측정한 뽀로로가 말하기의 성공점수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뽀로로가 말하기의 성공점수가 증가하였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CCNES) 중 고통감 반응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에 비해 유아의 나이가 들수록 고통감 반응이 증가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실험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한 실망스러운 선물은 성별로 차이가 났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전반적으로 정서조절을 잘 하였으나, 남아가 여아에 비해 연령에 따른 정서조절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둘째,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집중하기, 억제통제, 주의 전환이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보고한 유아의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가 관찰을 통해 측정한 정서조절 중 맥아더 이

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와 부적 상관이 있었고, 주의전환이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정서조절실패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실험으로 측정된 유아의 통제노력 중 만족지연 시간이 실험으로 정서조절을 측정할 실망스러운 선물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관련 양육행동 질문지(CCNES)의 지지반응인 문제정서 초점반응, 표현격려반응은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ERC)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CCNES의 비지지반응인 고통감은 정서조절(ERC)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정서관련 양육행동을 실험으로 측정된 협동놀이(언어적 반응)는 관찰로 정서조절을 측정할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정서조절 실패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과 억제통제,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관련 양육행동 질문지(CCNES)의 문제·정서초점이 어머니가 보고한 정서조절(ERC)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 중 억제통제가 관찰로 정서조절을 측정할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잉억제를 부적으로,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이 관찰로 정서조절을 측정할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정서조절실패와 맥아더 이야기 꾸미기의 과장표현을 부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실험으로 통제노력을 측정할 만족지연시간이 정서조절을 실험으로 측정할 실망스러운 선물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정적으로 설명했다.

가설1의 성과 연령별로 통제노력,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조절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제노력(뽀로로가 말하기 실험)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CCNES 중 고통감)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또한 정서조절(실망스런 선물) 성별 차이와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통제노력과 정서조절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했으나, 그 증가양상이 남아와 여아간 차이가 있었다. 여아의 경우

3세가 되면 이미 통제노력과 정서조절 능력이 일정 수준 성장되어서 4세와 5세가 되어도 약간의 변동이 있는 정도지만, 남아의 경우 3세 때는 매우 저조하다 4세와 5세를 거치며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남아와 여아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고통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고통감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 연구결과는 Wolchik과 Sandler(1997), Thompson(1990), Fabes 등(2002)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유아가 만 3세가 되면 인지적,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성숙되므로 통제노력과 정서조절 능력도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남녀별 차이가 커서 3세 때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뒤처지지만, 4, 5세가 되면 남아가 여아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 고통감도 4, 5세 남아의 증가하는 인지기능과 신체활동에 비례해 커지는 것 같다. 향후 국내외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확인 작업과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가설2를 검증한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가 있었다. 가설3을 검증한 결과, 유아의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보고한 질문지와 질문지, 행동실험과 행동실험 간에는 어느정도 상관이나 회귀 계수가 유의미한 반면, 어머니의 보고에 기초한 질문지와 실험이나 관찰 간의 상관이나 회귀분석은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어머니 보고와 관찰, 실험을 동시에 실시해 통제노력과 정서조절을 측정한 선행연구(Carlson & Wang, 200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였다. 향후 타당도 개선을 위해, 어머니가 보고한 질문지, 관찰이나 실험과 관계된 측정 오차나 정교화 등에 대한 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통제노력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통제노력 중 주의전환과 억제통제는 정서조절과 가장 관계 깊은

자기조절 능력으로서, 유아의 정서조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질문지와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통제노력의 하위요인인 주의전환이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유아의 정서조절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약 12.9%($\beta=.36, p<.0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의전환이 주의조절(attention regulation)의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었다. 주의조절은 억제통제와 함께 노력적 통제의 한 부분으로서, 3세 전후부터 빠르게 성장하는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ACC는 반응성 기질과 관련된 동기/정서 체계인 변연계와 계획/통제 체계인 전전두엽과 연결되어 있어 적절한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이 유연하게 이루어져 효과적인 정서조절이 가능하게 한다(Jones, Rothbart, & Posner, 2003; Kochanska, Coy, & Murray, 2001; Rueda et al., 2005). 또한 통제노력의 하위요인인 억제통제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한 유아의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조절을 약 14.4%($\beta=.38, p<.01$) 설명하는 것은 Carlson 과 Wang(2007), 김정민(2013)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가 보고한 통제노력과 정서조절과의 단순상관분석에서 억제통제($r=.61, p<.01$)와 주의전환($r=.61, p<.01$)은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주의집중하기($r=.32, p<.01$)는 정서조절과 상대적으로 적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주의집중하기는 억제통제와 주의전환에 비해 정서조절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도 주의집중하기가 정서조절을 설명하지 못했다. 주의집중하기는 주의전환과 마찬가지로 통제노력의 주의조절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의전환만큼 정서조절과 높은 관계도 없었고, 회귀분석에서도 정서조절을 설명해 주지 못해 주의집중하기가 억제통제만큼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와 불일치 했다(Bar-Haim, Bar-Av, & Sadeh, 2011; Davis, Bruce, & Gunnar, 2002). 국내에서 억제통제와 관련된 문영경(2009)의 연구에서는 통제노력(의도적 통제)의 하위 요인

을 밝히지 않고 총점으로 합산했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었다. 향후 주의집중하기가 정서조절을 잘 설명해주지 못하는 이유와 과정에 대해 외국과 국내 유아 간의 문화적, 기질적 차이와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질문지와 실험절차를 보다 정교화하는 등 후속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실험을 통해 통제노력을 측정한 뽀로로가 말하기(Simon Says)가 질문지와 실험 및 행동관찰 상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회귀분석 결과 본 과제의 수행결과가 정서조절(맥아더 이야기 꾸미기 중 과장표현)을 정적으로 예측했고($\beta=.37, p<.05$), 약 13.7% 설명해주었다. 이 결과는 Carlson과 Wang(2007)의 연구에서 4-6세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뽀로로가 말하기(Simon Says)가 포함되어 산출한 억제통제와 정서조절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와 불일치한다. 아마도 본 연구에서 Carlson과 Wang처럼 3개 정도의 여러 실험 점수들을 합산한 억제통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 1개만을 억제통제 점수로 사용한 점,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이 매우 저조한 3세의 유아들을 포함시킨 점이 작용한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유아는 외국의 유아와 다르게 뽀로로가 말하기 수행이 통제노력이 아니라 단순한 주의집중이나 지능을 측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통제노력을 측정한 만족지연 시간이 실험을 통해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실망스러운 선물과 정적 상관($r=.24, p<.05$)이 있었고, 회귀분석에서도 약 12.2%($\beta=.35, p<.05$)의 설명력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Mischel 등(1989)의 만족지연 패러다임(The Delay of Gratification Paradigm)이나 김혜순(2006)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 만족지연 시간의 증진이 정서조절을 잘 예측한 것은, 정서반응에 대한 적절한 억제(inhibition)가 효과적인 정서조절과 자기조절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자극에 대한 정서반응의 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만족지

연 시간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을 주요하게 예측하고 설명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문제·정서초점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관계 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문제·정서초점 반응은 CCNES에서 자녀의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정서초점 반응(Emotion-Focused Reactions: EFR)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킨 스트레스에 자녀가 대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초점 반응(Problem-Focused Reactions: PFR)을 모두 포괄하는 요인이다. 또한 협동놀이를 통해 측정된 어머니의 언어적 양육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과 상관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Fabes 등(2001), Morris 등(2007), Tao 등(2010), Chang 등(2011), 박진아(2006), 이지은(2014)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서 부모의 지지적 정서관련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조절과 관계 깊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보고(CCNES)에 기초한 정서관련 양육행동 중 표현격려 반응, 처벌·최소화, 고통감은 상관분석에서는 어머니의 보고에 기초한 정서조절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었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향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와 확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유아의 기질적인 통제노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주는 영향을 기존의 국내연구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뿐 아니라 부모-자녀 68쌍에 대한 관찰 및 실험연구 통해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보고만 사용하는 것은 편향적, 주관적 반응 등으로 타당도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과 타당도의 증진이 가능했다. 둘째, 정서관련 양육행동 측정과 연구를 위해 많이 쓰이는 설문지(CCNES)의 번역과 역번역을 하고 문화적 차이와 영향을 고려해서 한국형 단축판 CCNES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가 국내의 정상적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정상 유아의 정서조절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가 소수이고(안효민, 2013; 이지은, 2014), 주로 불안장애나 임상군에 속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박진아, 2006). 임상군에 속하는 유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정상군에 속하는 유아에 대한 연구는 정서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 연구결과를 부모교육 등에 유용하게 적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의 대상이 3-5세 영유아 68명이라 국내의 3-5세 영유아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숫자이다. 향후 후속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둘째,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한 통제노력이나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매개효과나 조절효과에 대해 검증하지 못했다. 향후 실험설계와 측정 방법의 다변화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부모양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높은 편이다. 향후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서조절, 효과적인 부모양육법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금주(2008). 아동의 심리평가와 검사. 서울: 학지사.
- 김수혜(2000). 3세 아동의 만족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아동의 성(性),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 수용, 표현 어휘력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 김윤정(2012). 여고생과 여대생의 위협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2014).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민(2013). 실행기능과 기질이 유아의 상황에 따른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연, 남은영(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6.
- 김혜순(2006).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및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정(1995).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지영, 정윤경(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문영경(2009). 어머니의 정서적 가용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유경(2009).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반응과 자녀의 정서조절 방략의 관계: 자녀의 정서인식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6).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의

-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아, 정문자(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9(2), 273-295.
- 배윤진(2011). 부모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의도적 통제, 친사회적 행동, 인지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선우현정(2009).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만족지연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재민(2005). 정서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과 정서표현 억제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적응이 부모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 75-85.
- 송하나, 최경숙(2006). 모자 상호작용에서 정서 표현성이 아동의 사회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1), 51-65.
- 양아름(2010). 만족 지연 능력과 주의기제: 지능, 실행주의 및 분산책략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지현(2013).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경, 민경환(2003).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이해의 발달:정서원인과 정서조절에 대한 이해. 심리과학.
- 이경옥(2004). 유아 기질 척도(CBQ)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연구, 24(5), 101-120.
- 이유진, 정은정(2013). 학령전기 아동의 의도적 통제의 매개효과: 모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31-249.
- 이지연, 광금주(2010). 5세 아동의 정서조절과 공감의 예언변인들:중단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1), 85-102.
- 이지은(2014). 어머니의 정서 신념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란, 신의진, 이경숙(1999). 학령전기 아동의 심적표상.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10(1), 21-33.
- 이혜련, 최보가(2002). 학령 전 아동의 정서이해와 부모이 정서표현성 및 아동정서 수용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03-112.
- 이혜원, 이옥경(2013).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반응양식 척도 타당화 연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발달심리학회 2013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포스터 논문 발표.
- 장혜인(2010). 자기조절적 기질로서의 통제노력: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9-35.
- 정윤경(2008). 아동 초기 정서 조절의 발달적 관련 변인: 어머니의 정서 관련 양육 행동 및 그 심리적 기제. *한국발달심리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정윤경, 박보은(2010). 정서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변인: 회고된 어머니의 정서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225.
- 지경진, 이순형, 성미영(2004). 실험자의 존재 유무와 친밀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 *인간발달연구*, 11(2), 103-116
- Alvord, M. K., & Grados, J. J. (2005). Enhancing resilience in children: A proactive approac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6(3), 238-245.
- Auerbach, J., Berger, A., Atzaba-Poria, N., Arbelâe, S., Cypin, N., Friedman, A., et al. (2008). Temperament at 7, 12, and 25 months in children at familial risk for ADH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7(4), 321-338.
- Bar-Haim, Y., Bar-Av, G., & Sadeh, A.(2011). Measuring Children's Regulation of Emotion-Expressive Behavior. *Emotion*, 11(2), 215-223.
- Balswick, J., & Avertt, C. P.(1977). Differences in expressiveness: Gender,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perceived parental expressiveness ascontributing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121-127.
- Barrett, K. C., & Campos, J. J.(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II:A Functionalist approach to emotions. In J.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ed ed., pp.555-578). NY: Wiley.

- Beebe(2005). Mother-infant research informs mother-infant treatment. *Psychanalytic Study of the Child*, 60, 7-46.
- Boccia, M., & Campos, J.J.(1989). Maternal emotional signals, social referencing and infants' reactions ot strangers. In Eisenberg(Ed), *New directions of child development*(vol, 44, pp 25-49). San Francisco: Jossey-Bass.
- Boyum, L. A., & Parke, R. D.(1995). Family emotioal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593-608.
- Brazelton, T. B., Koslowski, B.,& Main, M.(1974). The origins of reciprocity: 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M. Lewis & L. A. Rosenblum(Eds.), *The effect of the infant in its caregiver*(pp. 49-76). New York: Johnwiley & son.
- Carlson, S. M., & Wang, T. S.(2007). Inhibitory 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in preschool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 489-510.
- Cama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ampos, J. J., Frankel, C., & Camras, L.(2004). On the nature of emotion regulation. *Child Development*, 75, 377-394.
- Campos, J. J., Munne, D. L., Kermoian, R., & Campos, R. G.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84-303.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lo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s understanding of emotion.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hang, H., Olson, S. L., Sameroff, A. J., & Sexton, H. R.(2011). Child Effortful Control as a Mediator of Parenting Practices on Externalizing Behavior: Evidence for a Sex-Differentiated Pathway across the Transition from

- Preschool to Scho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1), 71 – 81.
- Cicchetti, D., Ganiban, J., & Barrett, D. (1991).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high risk populations t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In K. Dodge, J. Garber(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pp.15-4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M.(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2004). Emotional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 317-333.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No 2-3, Serial No. 240.
- Cole, P. M., Zahn-Waxler, C., & Smith, K. D.(1994). Expressive control during a disappointment: Variations related to preschoolers'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835-846.
- Davis, E. P., Bruce, J., & Gunnar, M. R.(2002). The Anterior Attention Network: Associations with Temperament and Neuroendocrine Activity in 6-Year Ol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0(1), 43-56.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nham, S. A.(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Denham, S. A.(1989). Maternal affect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368-376.
- Denham, S. A., & Kochanoff, A. T.(2002). Parental contribution to preschooler's

- understanding of emo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34(3), 311-343.
- Denham, S. A., Renwick-Debari, S., & Hewes, S. (1994). Emotional Communication between mothers and preschoolers: relations with emotion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4), 488-508.
- Denham, S. A.,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936.
- Diamond, A., & Taylor, C. (1996). Development of an aspect of executive control: Development of the abilities to remember what I said and to "Do as I say, not as I do." *Developmental Psychobiology*, 29, 315-334.
- Dunn, J., Brownm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K. I.,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Eisenberg, N., Smith, S. L., Spinrad, T. L. (2010). Effortful control. In Baumeister, R. F. & Vohs, K. D. (2nd Eds.), *Handbook of self regulation:*

-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 Eisenberg, N., Spinrad, T.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2), 334-339.
- Eisenberg, N., Hofer, C., & Vaughan, J.(2007). Effortful control and its socioemotional consequences, In J. J. Gross(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pp. 249-268). New York: Guilford Press.
- Eisenberg, N., Zhou, Q., Losoya, S. H., Faves, R. A., Shepard, S. A., Murphy, B. C., Reiser, M., Guthrie, I. K., & Cumberland, A. (2003). The Relations of parenting, effortful Control fo Children's Emotional Expressivity. *Child Development, 74*(3), 875-895.
- Fabes, R. A., & Eisenberg, N. (1992). Young children's coping with interpersonal anger. *Child Development, 63*, 116-128.
- Fabes, R. A., Eisenberg, N., Miller, P. A. (1990). Maternal correlates of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39-648.
- Fabes, R. A., & Eisenberg, N., Nymam, M., & Michealieu, Q. (1991). Young children's appraisal of other's spontaneous emotional re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58-866.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907 - 920.
- Fabes, R. A., Hanish, L., Martin, C. L., & Eisenberg, N. (2002). Young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social isolation: Alaten growth corve analysis. *Merrill-Palmer Quarterly, 48*, 284-307.
- Fonagy, P. A., & Target, M. (2000). *Revised Manual for MacArthur Narrative Completion Task*. Unpuglished Manuscript.
- Frederikson, B. L.(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Fridja, N.H., Kuipers, P., & ter Schure, E. (1989). Relations among emotion, appraisal, and emotional action rea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12-228.
- Gottman, J. M., & Kate,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Links to child-peer relations and other developmental outcomes*. Mahwah, NJ: Erlbaum.
- Grolnick, W.S., Bridges, L. J., & Connell, J. P. (1996). Emotion regulation in two-year-olds: Strategies and emotional expression in four contexts. *Child Development*, *67*, 928-941.
- Gross, J. J.(1988). Sharpening the Focus: Emotion regulation, Arousal, and Social competence. *Psychological Inquiry*, *9*(4), 287-299.
- Gross, J.J., John, O. P.(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2), 348-362.
- Halberstact, A. G.(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Halberstadt, A. G., Cassidy, J., Stifter, C. A., Parke, R. D., & Fox, N. A.(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Hockenbury, D. H., & Hockenbury, S. E. (2007). *Discovering Psychology*(4th Edition). NY: Worth Publisher.
- Holloway, S. D., Behrens, K. Y. (2002).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Japanese mother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erspectives on its association with childhood memories of family relations. In J. Bempechat, & J. G. Elliot(eds.). *New directons for child and adollescent develooment(no. 96): Learning in culture and context*(pp. 27-4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James, W. (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Jones, L. B., Rothbart, M. K., & Posner, M. I.(2003). Development of executive attention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6, 498-504.
- Kalut, J. W. & Shiota, M. N. (2007). *Emotion*. Belmont, CA: Thomson-Wadsworth. 민경환, 이옥경, 김지현, 김민희, 김수안 역(2007). 정서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Kochanska, G., Murry, K., & Harlan, E. T.(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Kochanska, G., Murry, K., Jaques, T., Koenig, & Vandegeest, K.(1996). Inhibitory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 490-507.
- Kochanska, G., & Knack, A.(2004).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6), 1087-1112.
- Landy, S.(2006). *Pathways to competence: Encouraging healthy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Lazarus, R. S. (1982). Thoughts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7, 1019 - 1024.
- Lewis, M.(1993). Self-conscious emotions: embarrassment, pride, shame, and guilt. In M. Lewis & J. Haviland(Eds), *Handbook of emotions*(pp. 563-573). New York: Guilford Press.
- Lewis, M., & Saarni, C.(1985). Culture and emotions. In Lewis, M., Saarni, C.(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102-135. Plenum Press.
- Liew, J., Eisenberg, N., & Reiser, M.(2004).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and negative emotionality, immediate reactions to disappointment, and quality of social functioning. *J.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89, 298-319.

- Li-Grining, C. P.(2007). Effortful control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in three citie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208-221.
- Malatesta, C. Z., Culver, C., Tesman, J. R., Shepard, B.(198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expression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4(1-2, Serial No. 219).
- Mangelsdorf, S. C., Shapiro, J. R., & Marzolf, D. (1995). Developmental and temperamental differences of in emotion regulations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6, 1817-1828.
- Mischel, W. Shoda, Y., & Rodriguez, M. L.(1989). Delay of gratification in children. *Science*, 244, 933-938.
- Moilanen, K. L., Shaw, D. S. Dishion, T. J., Gardner, F., Wilson, M. (2010). Predictors of longitudinal growth in inhibitory control in early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9, 326-347.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 Olson, S. L., Sameroff, A. J., Kerr, D. C. R., Lopez, N. I., Wellman, H. M. (2005). Developmental foundations of externalizing prblems, in young children: the role of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 25-45.
- Oppenheim, D., & Goldsmith, D. F.(Ed.)(2007). *Attachment Theory in Clinical Work with Children*. The Guilford Press. 이경숙 역(2009). 애착이론의 아동 임상적용: 연구와 실제의 연결. 한신대학교 출판부.
- Parkinson, B. (1994). Emotion. In A.M. Coleman (Ed.), *Companion encyclopaedia of psychology*, Vol. 2. London: Routledge.
- Plutchik, R.(1982). A Psycho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s. *Social Science Information*, 21, 529-553.

- Posner, M. I., & Rothbart, M. K.(2000). Developing mechanisms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and Psychology, 12*, 427-441.
- Rothbart, M. K.(2004). "Temperament and the pursuit of an integrated developmental psychology". *Merrill-Palmer quarterly, 50* (4): 492 - 505.
- Rothbart, M. K. (2007). Temperament, development and persona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4), 207-212.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3-7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5), 1394-1408.
- Rothbart, M. K., & Bates, J.E.(2006). Temperament. In N. Eisenberg & W.Dam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6th ., pp. 99-166). New York: Wiley
- Rueda, M. R., Posner, M. L., & Rothbart, M. K. (2005). the development of executive attention: Contributions to the emergence of self-regulation.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8*, 573-594.
- Saarni, C.(1984). An observation study of children's attempts of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Saarni, C., Campos, J. J., Camras, L. A., & Witherington, D.(2008). Principles of Emotion and Emotional Competence. In W. Damon, R. M. Lerner(ed),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An Advanced Course*(pp.361-405). John Wiley & Sons, Inc.
- Sher-Censor, E. & Oppenheim, D.(2004). Coherence and representations in preschooler's narratives :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in infancy. In M. W. Pratt & B. H. Feese(Eds.), *Family stories and the life course: Across time and generations* (pp. 77-107). Maha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hied, A., & Cicchetti, D.(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06-916.
- Simonds, J., Kieras, J. E., Rueda, M. R., & Rothbart, M. K.(2007). Effortful control, executive atten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7-10-year -old children. *Cognitive Development, 22*, 474-488.
- Sorce, J. F., Emde, R. N., Campos, J., & Klinnert, M.D.(1985). Maternal emotional signaling: Its effect on the visual cliff behavior of 1-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5-200.
- Spinar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T., Smith, C. L., Kupfer, A., et al.(2007). Relation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170-1186.
- Strack, F., Martin, L.L., & Stepper, S. (1988). Inhibiting and facilitating conditions of the human smile: A non-obtrusive test of the facial feedback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68-777.
- Suzuki, S., Holloway, S. D., Yamamoto, Y., & Mindnich, J. (2009). Parent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ing in Japan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30*(11), 1505-1526.
- Terwogt, M. M., & Olthof, T.(1991). Awareness and self-regulation of emotion in young children. In C. Saarni & P. L.(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5-52
- Thompson, R. A.(1998). Emotional compete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 *Psychological Inquiry, 9*(4), 308-309.
- Thompson, R. & Meyer, S.(2007). Socialization of Emotion Regulation in the

family, In J. J. Gross(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pp. 249-268).
New York: Guilford Press.

Verstraeten, K., Vasey, M., Raes, F., & Bijttebier, P. (2009). Temperament and risk for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Mediation by rumination and moderation by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An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37(3), 349-361.

ABSTRACT

The Influence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other's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o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Hye W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maternal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o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mother's self report about emotion-related child-rearing attitude, was translated into Korean CCNES and validated. In order to assess children's effortful control, CBQ(Child Behavior Questionnaire), Chocolate Experiment for Delay of Gratification and the Experiment of Simon Says were used.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 Disappointing Gift, MacArthur Story-Stem Battery(MSSB) and Mother-Child Cooperative Play were observed to assess emotion regula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ttention Shifting and Maternal Inhibitory Control of CBQ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 regulation of ERC. Problem Emotion-Focused Reactions(PEFR), Expressive Encouragement(EE), Support of CCN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 regulation of ERC. Distress Reactions(DR) and Nonsupport of CCN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 regulation of ERC. Verbal Ratings of Mother-Child Cooperative Play were negatively with failure of regulation of MSSB. Maternal inhibitory control and attention shifting of CBQ, Problem Emotion-Focused Reactions(PEFR) of CCNES positively predicted emotion regulation of ERC, and the Experiment of Simon Says negatively predicted emotion regulation of it. Also inhibitory control of CBQ negatively predicted down-regulation of MSSB and attention shifting of CBQ negatively predicted failure of regulation of MSSB. Chocolate Experiment

for Delay of Gratification positively predicted the scores of Disappointing Gift. The effortful control, maternal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and emotion regulation were compared by children's sex and age. The scores of Simon says of old group were higher than them of young group in interaction of sex and age. The distress of CCNES had interaction effect of sex and age. The scores of Disappointing Gift of boys and old group were higher than them of girls and young group with interaction of sex and age. The limit and future tasks were discussed.

*key word: effortful control, maternal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emotion regulation*

<부록1>

설문지 I (CCNES)

다음은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황을 잘 읽으시고 모든 문항에 대해 어머니가 평소 자녀에게 반응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것에 √ 나 ○로 표시해 주십시오. 실제 경험하지 않은 상황은 가정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상황1)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친구의 생일파티에 못 가 화가 났다면, 나는...

	질문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위로해 주고 파티에 못가서 나빠진 기분이 나아지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6)	1	2	3	4	5

상황2) 만약 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무서워해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매우 떨면서 운다면, 나는...

	질문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 렇다
2	아이가 자신의 두려움을 말 할 수 있게 격려한다.(20)	1	2	3	4	5

상황3) 만약 아이가 친구 집에서 오후에 놀려고 할 때, 엄마가 같이 할 수 없어서 아이가 불안해 하고 속상해 한다면, 나는...

	질문사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 렇다
3	아이에게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에 대해 말해 줌으로써 아이를 달래준다. (25)	1	2	3	4	5
4	엄마 없이 친구 집에 있는 것이 무섭지 않도록 아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예: 좋아하는 책이나 인형을 가지고 가기).(26)	1	2	3	4	5

5	아이에게 별일 아닌데 아기처럼 굴지 말라고 한다. (27)	1	2	3	4	5
6	아이의 반응 때문에 속상하고 불편하다. (29)	1	2	3	4	5
7	아이가 자신의 불안한 감정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한다.(30)	1	2	3	4	5

상황4) 만약 아이가 친구들과 집단 활동에 참여하면서 계속 실수하고 당황해서 우는 것 처럼 보인다면, 나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8	아이를 위로해주고 기분이 나아지게끔 한다. (31)	1	2	3	4	5
9	나 스스로 불편하고 당혹스럽다. (33)	1	2	3	4	5
10	아이가 느낀 당혹스러운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준다. (35)	1	2	3	4	5

상황5) 만약 아이가 발표회나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면, 나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 렇다
11	아이가 덜 긴장 하도록,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한다. (38)	1	2	3	4	5
12	아이에게 애기처럼 굴지 말라고 말한다.(40)	1	2	3	4	5
13	아이가 침착해 지지 않는다면, 즉시 집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41)	1	2	3	4	5
14	아이가 자신의 불안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42)	1	2	3	4	5

상황6) 만약 아이가 무서운 TV 프로그램을 본 후,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나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5	무엇이 그토록 무서웠는지 아이가 말하도록 격려한다.(49)	1	2	3	4	5
16	아이가 잠을 잘 자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한다(예: 인형을 갖고 자기, 잘 때 불을 켜두기).(52)	1	2	3	4	5
17	자러 가지 않으면 더 이상 TV를 못 보게 하겠다고 말한다. (53)	1	2	3	4	5
18	무서운 내용을 잊도록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것을 한다. (54)	1	2	3	4	5

상황7) 만약 아이가 놀이터나 공원에서 다른 아이가 놀리고 함께 놀아주지 않아 울려고 한다면, 나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그 렇다
19	아이에게 만약 운다면 곧 집으로 갈 거라고 말한다.(56)	1	2	3	4	5
20	아이를 위로해주고 아이가 즐거운 일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58)	1	2	3	4	5

상황8) 만약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그 중 한 아이가 내 아이에게 욕을 하고 내 아이가 떨면서 온다면, 나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21	아이에게 그 일에 대해 법석떨지 말라고 말한다.(61)	1	2	3	4	5
22	아이에게 잘 행동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곧장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63)	1	2	3	4	5
23	다른 아이가 자신에게 안 좋게 대할 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예: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생각해보기)을 생각해 보게한다.(64)	1	2	3	4	5
24	아이를 위로해준 후 그 사건을 잊을 수 있도록 함께 (65) 게임을 한다.	1	2	3	4	5

상황9) 만약 아이가 낯선 사람 근처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 하고 싫어해서 손님이 오면 항상 울고 자기 방에만 있으려 한다면, 나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25	손님을 덜 무서워 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예: 좋아하는 인형을 안고 만나기). (67)	1	2	3	4	5
26	손님들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에 대해 말함으로써 아이가 편안해 지도록 한다.(69)	1	2	3	4	5
27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불편하다. (70)	1	2	3	4	5
28	아이에게 아기같이 굴지 말라고 한다. (72)	1	2	3	4	5

설문지 II(유아 정서조절척도)

다음 문항들은 평소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 생각한 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모든 항목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이는...

	질문사항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른이 말을 걸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친절한 어른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1	2	3	4
2	한 가지 활동을 하다가 다른 활동으로 옮길 때 화를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잘 바꾼다.	1	2	3	4
3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할 때 금방 기분이 회복된다(예: 정서적으로 힘들 일이 있을 때, 토라지거나, 시무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피하는 상태로 있지 않고 금방 회복된다.)	1	2	3	4
4	친구가 말을 걸면 긍정적으로 반응한다(친절한 친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1	2	3	4
5	쉽게 화가 폭발하거나 쉽게 짜증을 내는(때를 쓰는)경향이 있다.	1	2	3	4
6	자기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리며 참을 수 있다.	1	2	3	4
7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재미있어 한다(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별을 받을 때 웃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8	갑자기 울컥하고 쉽게 흥분하는 편이다.	1	2	3	4
9	흥분된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예: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다).	1	2	3	4
10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예: 행동이나 시간을 제한할 때) 화를 낸다.	1	2	3	4
11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1	2	3	4

	질 문 사 항	거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2	친구와 놀려고 할 때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활동적이다.	1	2	3	4
13	친구가 말을 걸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예: 화난 목소리로 얘기하거나 무서워한다).	1	2	3	4
14	충동적이다(자신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1	2	3	4
15	감정이입을 잘 하고,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할 때 관심을 보인다.	1	2	3	4
16	심하게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흥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때가 있다.	1	2	3	4
17	다른 사람이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자신을 방해하면 부정적인 감정(화, 공포, 좌절, 고통)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1	2	3	4
18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1	2	3	4

설문지 III(유아 통제노력 척도)

나의 아이는.....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면, 낮출 수 있다.	1	2	3	4	5	6	7
2	한번 어떤 일에 집중하면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기 어렵다.	1	2	3	4	5	6	7
3	하번 장난감이나 어떤 놀이를 선택하면, 지겨워질 때 까지 그것만을 한다.	1	2	3	4	5	6	7
4	지시게임을 잘 한다 (공자가라사대, 369게임, 007뽕)	1	2	3	4	5	6	7
5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1	2	3	4	5	6	7
6	지시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1	2	3	4	5	6	7
7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이 어렵다.	1	2	3	4	5	6	7
8	하던 일을 끝내지 않고, 다른 활동으로 옮긴다.	1	2	3	4	5	6	7
9	여행이나 바깥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을 계획해서 준비한다	1	2	3	4	5	6	7
10	새로운 활동에 들어가지 전에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린다.	1	2	3	4	5	6	7
11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7
12	부모가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기가 매우 어렵다.	1	2	3	4	5	6	7
13	영화관이나 교회처럼 가만히 앉아있어야 할 때 앉아 있기 힘들어한다.	1	2	3	4	5	6	7
14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웃는 것을 참을 수 있다.	1	2	3	4	5	6	7
15	그림 그리기나, 색칠을 할 때 매우 집중해서 한다.	1	2	3	4	5	6	7
16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5	6	7
17	집짓기나 조각맞추기를 할 때 매우 집중해서 오랫동안 한다.	1	2	3	4	5	6	7
18	위험하다고 주의를 들은 장소에 갈 때 천천히 주의깊게 접근한다.	1	2	3	4	5	6	7

설문지 IV(어머니 정서조절 척도)

각 문항들을 잘 읽고 당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질 문 사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	1	2	3	4	5	6	7
2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6	7
3	(슬픔이나 분노 같은)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때,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	1	2	3	4	5	6	7
4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1	2	3	4	5	6	7
5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정서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서를 통제한다.	1	2	3	4	5	6	7
7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1	2	3	4	5	6	7
8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나의 정서를 통제한다.	1	2	3	4	5	6	7
9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2	3	4	5	6	7
10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1	2	3	4	5	6	7

V. Berkeley 양육효능감 척도

다음 항목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표시해 주세요. 실제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은 예상하여 응답해 주십시오(전혀 이해가 안되거나 작성하기 힘든 항목은 빈칸으로 두세요).

	질 문 사 항	전혀 못한다		보통		매우 잘한다
1	아이의 말을 경청한다.	1	2	3	4	5
2	아이의 감정을 이해한다.	1	2	3	4	5
3	아이 앞에서 나의 감정을 통제 할 수 있다.	1	2	3	4	5
4	아이가 잘못했을 때, 과하게 반응 하지 않는다.	1	2	3	4	5
5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1	2	3	4	5
6	다른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존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이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	1	2	3	4	5
7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1	2	3	4	5
8	아이가 잘 할 때 칭찬해 준다.	1	2	3	4	5
9	아이가 잘못 할 때 적절히 규율한다.	1	2	3	4	5
10	아이에게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다.	1	2	3	4	5
11	아이가 어른을 존경하게 한다.	1	2	3	4	5
12	아이가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1	2	3	4	5
13	아이가 과제가 어려울때에도 계속 시도하도록 한다.	1	2	3	4	5
14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아이의 행동을 파악해 지도한다.	1	2	3	4	5
15	아이가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도록 지도한다. (예, “실례합니다”, “감사합니다”)	1	2	3	4	5

	질 문 사 항	전혀 못한다		보통		매우 잘한다
16	아이가 시간을 잘 말하도록 한다.	1	2	3	4	5
17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한다.	1	2	3	4	5
18	아이가 일을 독립적으로 하게 한다.	1	2	3	4	5
19	한글을 잘 배우게 한다.	1	2	3	4	5
20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게 한다.	1	2	3	4	5
21	아이가 충분한 운동을 하게 한다.	1	2	3	4	5
22	아이가 단정하고 깨끗하도록 한다.	1	2	3	4	5
23	아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한다.	1	2	3	4	5
24	아이가 욕설이나 험한 말을 안 하도록 한다.	1	2	3	4	5
25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관심을 갖게 한다.	1	2	3	4	5

〈부록2〉

이야기꾸미기 에피소드(MSSB)

- 이야기 도입-

유아에게 이야기 꾸미기 과제 소개하기

“ 선생님하고 ○○하고 여기 있는 인형들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꾸미기를 할 거야.(준비된 인형들을 소개한다) 이 이야기 꾸미기를 할 때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이야기를 꾸민 다음에 ○○가 인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시작해 볼까?

I: 검사자, M: 어머니, F: 아버지, C: 주인공(희진/영수),
S: 동생(영희/준영), P: 친구(진영/철민)

에피소드 주제	에피소드 실시내용
warm - up story 생일파티	I: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하며, 바로 희진(여아)/영수(남아)의 생일이야, 그래서 (케익을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엄마가 케익을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생일파티를 시작하려고 해 M: 여보, 희진(영수)아 영희(준영)야, 모두 식탁에 앉아요 I: 가족이 식탁에 앉도록 도와주겠니? I: 자, 이제 ○○차례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인형을 잡고 보여줄래?
엄마의 두통 (mom's headache)	I: 어느 날 엄마하고 희진(영수)하고 같이 TV를 쇼파에 앉아서 보고 있었어 M: 희진(영수)야, (짜증섞이 목소리로) 엄마가 머리가 아프거든(TV를 끈다). 잠시 조용히 딴 거 하고 있어. C: 네, 엄마. 그러면 저는 책을 읽고 있을게요 P: ('딩동' 초인종을 누른 뒤 들어와서) 희진(영수)야,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만화를 하는데 우리 같이 보자 I: 자, 이제 ○○차례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형을 잡고 보여줄래?
잃어버린 열쇠 (lost key)	I: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마주보고 화난 표정으로 있어,(아주 화가 많이 난 표정을 짓는다.) 선생님 얼굴 봐볼래?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희진(영수)이가 엄마아빠 앞에 서있어. M: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이 내 열쇠 잃어버렸지요? F: 아니야,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어. M: (짜증나는 소리로)당신은 자주 열쇠를 잃어버리잖아요, 이번에도 내 열쇠를 잃어버렸잖아요? F: (큰소리로)아니라니깐, 이번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I: 자, 이제 ○○ 차례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형을 잡고 보여줄래?

<부록3>

유아의 역기능적 정서조절 평정척도 기록용지

유아 이름: _____ 평정자: _____

유아 ID : _____ 날 짜: _____

	엄마의 두통 (lost key)	잃어버린 열쇠 (mom's headache)
과잉억제(down-regulation)		
과장표현(exaggeration)		
정서조절의 실패 (failure of emotion regulation)		

* 점수범위: 1 - 12

<Atypical Response>

<부록4>

MSSB 정서조절 평정척도

Fonagy & Target(2000)

1. 과잉억제(down-regulation)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무시하는 경향.

(1-3) 정서가 조심스럽지만 적절히 표현됨

- 정서적 반응: 부정적 정서가 맥락에 적절한 강도와 정도로 표현된다. 유아의 목소리와 얼굴표정도 이야기 내용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정서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되는 편이다.

- 행동적 반응: 유아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이야기를 꾸민다.

- 인지적 반응: 유아는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갈등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딜레마 상황이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꾸민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유아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서 엄마 아빠가 싸움을 멈추고 사과했다고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목소리 크기나 목소리 톤, 화난 어조 등이 이야기 맥락에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한다.)

(4-6) 정서가 드러나지만 다소 부족함

- 정서적 반응: 어느 정도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지만 정서표현이 다소 억제되어 있다. 이야기 내에서 정서가 어느 정도 언급될지라도 이야기를 꾸미는 유아의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 그리고 제스처에서는 정서가 충분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는다.

- 행동적 반응: 유아가 검사에 임하기는 하지만 수동적이며 검사자가 지속적으로 격려를 해야 이야기를 꾸민다. 검사자의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자주 숙이며 목소리가 작은 편이다.

- 인지적 반응: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갈등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검사자가 격려하면 딜레마 상황 이후의 이야기를 꾸미기는 하지만 딜레마 상황과 직접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유아는 검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검사자의 지속적인 격려가 있는 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소리를 질러 주인공이 놀라고 무서웠

다고 이야기를 꾸밀지라도 이야기를 꾸미는 목소리 톤과 표정에서 이러한 정서가 적극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며 목소리 또한 작아 잘 들리지 않는다)

(7-9) 정서반응이 거의 드러나지 않음

-정서적 반응: 이야기를 꾸미는 유아의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 제스처에서 부정적 정서를 거의 드러내지 않지만, 유아의 얼굴에 긴장감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행동적 반응: 검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검사자가 격려를 해도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를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꾸미기를 하지 않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검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

- 인지적 반응: 딜레마 갈등상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거나 무시하는 편이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엄마와 아빠가 갈등하는 자극이 주어져도 유아의 얼굴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변하지 않으며 갑자기 주인공이 잠이 들었다고 하는 등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자극을 무시한다. 유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웅얼거리면서 간신히 이야기를 꾸민다)

(10-12) 극도의 정서억압

-정서적 반응: 이야기 내에서 유아의 정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유아가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감을 보여 이야기를 꾸미지 못한다.

-행동적 반응: 유아는 머리를 심하게 꼬고 팔이나 신체 일부를 반복해서 긁거나 문지른다. 손톱이나 다른 도구를 책상을 긁기도 한다. 검사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인지적 반응: 딜레마 갈등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인하고 검사자의 격려가 있어도 이야기 꾸미기 과제를 지속하지 못한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주인공은 정서를 무시하거나 명백하게 부인한다. '아니 엄마 아빠는 화가 안 났어요' 라고 말하며 부정적 정서를 부인하거나 '몰라요'라며 이야기 꾸미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 검사도중 굳은 얼굴표정으로 팔이 빨개질 정도로 심하게 긁고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2. 과장표현(exaggeration)

유아가 부정적 정서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맥락에 부적절하게 격렬하고 과도하게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경향

(1-3) 정서가 조심스럽지만 적절히 표현됨

-정서적 반응: 부정적 정서가 맥락에 적절한 강도와 정도로 표현된다. 유아의 목소리와 얼굴표정도 이야기 내용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정서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되는 편이다.

-행동적 반응: 유아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이야기를 꾸민다.

-인지적 반응: 유아는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갈등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면서 딜레마 상황이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꾸민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유아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서 엄마 아빠가 싸움을 멈추고 사과했다고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목소리 크기나 목소리 톤, 화난 어조 등이 이야기 맥락에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한다.)

(4-6) 조금 과장된 정서표현

-정서적 반응: 유아의 얼굴표정이나 목소리 톤, 어조, 제스처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이야기 맥락 내에서 수용될 만큼보다는 좀더 과장되어 있다.

-행동적 반응: 유아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만 이야기 꾸미는 동안 맥락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수준보다는 다소 흥분하고 거칠게 인형을 다루고 소리 지른다.

-인지적 반응: 딜레마 갈등상황에 대해 맥락 내에서 제시되는 갈등수준보다는 다소 과장되게 흥분하면서 언급한다. 갈등상황이 해결되기 보다는 증폭된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유아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서 가족들이 싸우고 때렸다고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목소리 크기나 목소리 톤, 화난 어조 등이 이야기 맥락 수준보다 다소 과장되고 격앙된 수준으로 표현되며 인형들은 다소 거칠게 다루면서 이야기를 꾸민다.)

(7-9) 과장된 정서표현

-정서적 반응: 유아의 얼굴표정이나 목소리 톤, 어조와 제스처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정서표현이 매우 과장되고 폭발적이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화를 내고 씩씩거린다.

-행동적 반응: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유아의 행동이 과격해진다. 매우 흥분하면서 검사도구를 거칠게 다루고 던지기도 하며, 책상에서 일어나 검사실을 뛰어다닌다.

-인지적 반응: 제시되는 딜레마 갈등상황 수준보다 과장되게 매우 흥분하며 언급하며 이야기를 꾸미면서 여러 가지 다른 갈등상황이 추가로 나타나 갈등상황이 매우 증폭

된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유아는 주인공이 엄마 아빠를 때리고 엄마 아빠도 서로 싸우면서 때리고 밀고 화를 냈다고 소리 지르며 이야기를 꾸미고 얼굴표정을 심하게 찡그리는 등 과장되게 표현한다. 때로는 유아 스스로 격앙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검사자에게 직접 부정적 정서표현을 하기도 한다.

(10-12) 극도로 과장된 정서표현

-정서적 반응: 유아의 얼굴표정이나 목소리 톤, 어조 등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가 폭발적이라 조절이 되지 않는다.

-행동적 반응: 유아는 극도의 흥분으로 인해 본인이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다. 책상을 치거나 검사 도구를 집어던지고 검사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검사자를 때린다.

-인지적 반응: 제시된 딜레마 갈등상황 수준보다 극도로 과장된 수준으로 이야기를 꾸민다. 갈등상황이 증폭되고 복잡해져서 이야기 내에서 전혀 해결되지 못한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엄마와 아빠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주인공을 때렸다고 하며 인형을 심하게 때린다. 엄마는 나중에 화가 너무 나서 동생까지 때리게 되었다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치는 등 이야기를 꾸미는 유아 또한 폭발적으로 화를 내며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엄마인형으로 동생인형을 너무 세게 때리고 던져 버려서 인형이 망가진다.

3. 정서조절 실패

유아의 정서변화가 매우 급격하며 유아가 표현하는 정서와 관찰자가 느끼는 유아의 정서가 서로 모순되거나, 유아가 맥락에 부적절하게 기이한 형태로 정서표현을 하는 경향

(1-3) 정서가 조심스럽지만 적절히 표현됨

-정서적 반응: 부정적 정서가 맥락에 적절한 강도와 정도로 표현된다. 유아의 목소리와 얼굴표정도 이야기 내용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정서에 맞추어 적절하게 표현되는 편이다.

-행동적 반응: 유아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이야기를 꾸민다.

-인지적 반응: 유아는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딜레마 갈등상황에 대해 직접 언급하

면서 딜레마 상황이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꾸민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유아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라고 소리쳐서 엄마 아빠가 싸움을 멈추고 사과했다고 이야기를 꾸미는 동안 목소리 크기나 목소리 톤, 화난 어조 등이 이야기 맥락에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한다.)

(4-6) 조금 손상된 정서조절

-정서적 반응: 유아의 정서표현 변화가 빈번한 편이며 상황에 다소 적합하지 않은 얼굴표정이 가끔 나타난다.

-행동적 반응: 유아는 검사자에게 검사를 중단하고 싶은 의사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검사자가 격려하면 수긍하고 검사에 반응한다. 검사를 지루해하거나 힘들어 한다.

-인지적 반응: 딜레마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야기를 꾸미지만 이야기가 매우 짧게 끝나거나 이야기 흐름에 일관성이 없는 편이다.

(예:

(7-9) 손상된 정서조절

-정서적 반응: 유아의 정서표현 매우 심하며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얼굴표정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유아가 갑자기 검사자에게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기도 한다.

-행동적 반응: 유아는 검사자가 격려를 해도 검사수행을 거부하거나 검사자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검사 도구를 마음대로 꺼내버리거나 검사상황에서 불필요한 물건을 요구하고 갑자기 검사실에서 나가버린다.

-인지적 반응: 유아는 딜레마 갈등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반복해서 딜레마 갈등상황을 물어본다. 딜레마 갈등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꾸민다. 유아가 이야기에 일관성이 없다. 이야기 꾸미는 맥락과 검사장면을 혼동한다.

(예: '엄마의 두통' 에피소드-엄마가 짜증을 냈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활를 내는 얼굴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이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웃긴얘기가 생각나서 재미났다면서 크게 웃음. 엄마가 화가 났다고 하며선 엄마는 주인공이 아니라 검사자에게 '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저리가'라고 소리 지르며 엄마인형으로 검사자를 밀어버린다.)

(10-12) 극도의 정서조절 실패

-정서적 반응: 유아의 정서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정서표현 변화가 매우 심하여 일관

적이지 않다. 유아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거나 얼굴표정이 사라져 무표정해진다.

-행동적 반응: 유아가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자 또한 유아의 공격적이거나 특이한 이상행동(갑자기 통곡하며 울거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거나 검사실 구석에 들어가 숨어버리는 등)을

-인지적 반응: 딜레마 갈등상황 이후에 꾸미는 이야기의 내용이 기괴하다. 딜레마 상황과 전혀 없는 이야기를 꾸미며 이야기 내용도 매우 비 일관적이고 검사자가 전혀 이해 할 수 없다.

(예: '잃어버린 열쇠' 에피소드- 엄마와 아빠가 화가 나서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불이 나서 타버렸다고 말하면서 유아의 얼굴표정은 웃고 있고 목소리 톤은 매우 상기되어 있다. 매우 흥분하며 이야기를 꾸미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검사실에서 나가 버린다. 검사자가 유아의 폭발적인 정서나 기이한 정서표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전혀 통제할 수 없다.)

<부록5>

협동놀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분석 코딩 메뉴얼

1) 어머니의 비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Parent Nonverbal Ratings)		
① 어머니가 신체적 접촉을 함	어머니가 유아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접촉하는 행동.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유아에게 접촉하는 행동	
② 쳐다보기	어머니가 유아와 눈맞춤을 하는 것으로 양적으로 측정하기	
③ 얼굴표정(긍정적)	어머니가 유아에게 열의를 가진 표정을 보이는가?	유아가 어머니를 보지 않아도 어머니가 유아를 향해 긍정적으로 쳐다보는 행동
④ 제스처	어머니가 유아에게 상호작용을 위해 제스처를 사용하는지의 여부	박수, 엄지손가락
⑤ 신체적 접촉방식(지지적)	어머니는 유아의 요구를 파악하여 유아가 보내는 신호에 적절한 신체적 접촉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①과 구분하여 아이가 신체적 접촉을 요구할 때 : 어머니의 요구가 아님)	

2)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Parent Verbal Ratings)		
① 언어적 표현(긍정적)	긍정적 언어표현- 긍정적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범위, 강도, 빈도, 높은 억양.	와, 오, 덩동덩 등의 감탄사
② 유아의 이름 사용	상호작용하는 동안 어머니가 유아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한다.	
③ “우리”라는 대명사 사용	어머니가 “우리” 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한다.	
④ 질문에 대한 반응	상호작용하는 동안 어머니가 유아의 질문에 반응을 보이는지를 측정한다.	
⑤ 긍정적 언어적 강화	상호작용 동안 어머니가 긍정적 강화를 하는지를 본다.	잘했어, 대단해, 최고야, 더 잘 할 수 있어, 잘하네
⑥ 함께 한 경험 언급하기	상호작용 동안 어머니가 이전에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는지를 측정한다.	

3)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 평정(Parent Global Ratings)		
① 긍정적 태도	어머니의 정서가 긍정적이며 유아에게도 긍정적인 정서를 보이는지를 측정한다. 따뜻함, 미소, 웃음, 칭찬, 즐거움, 유아에게 말 걸기 등이 해당된다. 평정자가 보기에 유아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 모두 해당된다.	
② 격려언어, 행동	상호작용 동안 어머니가 유아를 격려하는지를 측정한다. 유아를 격려하는 어머니는 좀 더 많이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제안하며, 대개 유아와 함께 하는 일에 좀 더 참여하고, 유아의 행동에 대해 좀 더 많이 안다.	칭찬, 긍정적인 신체접촉 (예 : 잘할 수 있을까?)
③ 유아에 대한 민감성	어머니가 <u>유아의 요구</u> 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이 요구를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쉽게 바꿀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유아의 요구 예 : 질문, 하기 싫거나 어렵다는 표정, 과제와 상관없는 말이나 행동

<부록6>

실망스러운 선물 반응 sheet

1) 긍정적 차원	15초(실험자가 있을 때)					15초(실험자가 없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빨을 보이며 크게 웃기										
입은 다물고 있으나 크게 웃기										
열정적으로 “고맙습니다” 말하기										
좋은 의미로 놀라서 눈썹을 올리기										
실험자와 시선접촉하며 웃는 눈										
웃으며 눈에 주름지기										
약간 웃음 - 다문 입을 약간 벌리기										
“고맙습니다” 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기										
긍정적 차원 점수										
2) 일시적(이행) 차원	15초(실험자가 있을 때)					15초(실험자가 없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약간 웃으며, 고통스러운것 처럼 눈살 찌푸리기										
입밖으로 혀 내밀고 넣기										
선물과 실험자 사이를 2번 이상 응시하기										
이를 보이며 입술을 깨물기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만지기										
머리를 젖히고 돌리기										
의심쩍은 듯 입으로 소리내기										
웃기, 피식 웃기										
말하기(입을 열거나 다물고)										
3) 부정적 차원	15초(실험자가 있을 때)					15초(실험자가 없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웃음이 갑작스럽게 없어짐										
코를 찡그리기										
짜증이나 실망한 듯 이마를 찡그리기										
당황해서 오무라든 입										
딱 일직선으로 다문 입술										
실험자와의 시선접촉 피하기										
부정적인 콧소리(코웃음, 어)										
부정적인 말하기 (예를들어 “이것은 단순히 부러진 연필이잖아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어”/어이커야닌 데)										
어깨를 으쓱하기										
부정적 차원 점수										

감사의 글

먼저 발달심리학이라는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신 지도교수님이시자 스승이신 이옥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부족한 제자를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최경숙 교수님, 이경숙 교수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이정윤 교수님, 연구방법론을 끝까지 지도해주신 박혜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동안 학문적으로 이끌어 주신 심리학과 채규만 교수님, 김정규 교수님, 김명선 교수님, 학과장 조영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성신여대 학부때부터 심리학자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故 이주용 교수님과 홍대식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과정에 함께하여 자료분석에 도움을 준 발달랩 후배 배은경 선생, 이경숙 교수님의 지도학생 고민정 선생, 실험진행과 정리작업을 도와준 문재선 학생, 역번역에 도움을 준 지식근 선생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실험연구를 할 수 있게 유치원소개 등 도움을 주신 고향자 선생님, 박영란 전도사님 그리고 연구의 참여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기꺼히 실험에 참여해 주신 어머니들과 사랑스러운 유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수학하면서 논문과정을 같이한 김진아 선생, 서로간에 격려를 아끼지 않은 김유정 선생, 김용희 선생, 김주현 선생, 류명은 선생, 인지랩과 계슈탈트랩 박사과정 선생님들, 발달랩 후배들과 고민숙 선생, 사회랩 후배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부족한 딸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항상 살펴준 언니와 동생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에게 항상 기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아버님, 어머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준 남편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두 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의 영적 삶의 빛이 되어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